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OCT 1 9 1981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44 1981년10월14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October 14,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학원내 학생간첩단 소탕

재일교포학생 김태홍외4명 구속

(서울본사 전화) 한국보안사는 명문대학에서 암약하던 북괴간첩단 17명을소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간첩단은 학생들을선동, 반정부 시위를 벌여 사회혼란을 조성, 정부전복을 음모하였다고 밝혀졌다.

이번 소탕된 간첩단의주동은 재일교포 김태홍(25)으로 평양측 지령을 받고 학생신분으로 가장, 연세대학에 침투하였다고 보안사가 밝혔다.

77년4월에 한국에 온 김은 경제학과 동급생 우대형(24세), 박성우(21세)등을 포섭 불온공작을 획책했다.

김태홍은 학생들에게 좌익사상을 주입, 반정부시위를 주도하고, 군사기밀탐지, 불온문서살포, 평양방송청취권고등 혐의로 체포됐다.

김태홍은 지난4년5 개월동안 일본과 한국을 12차례나 왕래하면서 공작을 해오면서 북한으로부터 일화1백62만엔을 공작금으로 받았으며 올겨울방학을 이용, 평양에서 20일 동안의 추가밀봉교육을 받았다

김태홍외 4명은 정식구속기소됐고 나머지 연루됐던 학생들은 훈방조치됐다.

「윈타리오」당첨 다양해져

1개숫자 틀려도 상금기회

이번 주부터 윈타리오의 추첨방법이 다양해졌다.

1등상에는 종전과 같이 6자리 숫자가 다 맞은 번호 하나만 추첨, 10만달러 상금이 걸려있다.

종전 25,000달러 상금의 6자리 번호 4개를 뽑던 2등상금은 상금이 10,000달러의 2개로 줄어든 반면, 1등상금 번호에 묘미를 두어 1자리 숫자가 틀린 사람들에 대한 특별상금 기회를 확장했다. 즉 1등 번호에서 끝으로나 처음부터 다섯자리만 맞으면 5000달러, 네자리만 맞으면 100 달러, 세자리만 맞으면 10달러의 특별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또 50달러의 상금이 걸린 혼합번호 당첨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6개의 번호를 뽑게 될 이 상금순서에 관계 없이 번호만 맞으면 된다.

이밖에 두자리 숫자의 윈·활(Win'fall)번호는 세자리, 네자리를 뽑는 상금들이 종전과 마찬가지이다.

새로 바뀐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1등 $100,000
6개숫자와 순서가 맞아야 됨.

1등 특별상 $5,000
처음이나 끝으로부터 5개 숫자와 순서가 맞아야 됨

1등 특별상 $100
처음이나 끝으로부터 4개 숫자와 순서가 맞아야 됨

1등 특별상 $10
처음이나 끝으로부터 3개 숫자와 순서가 맞아야 됨

2등, 3등 $10,000
6개숫자와 순서가 맞아야 됨.

혼합번호상 $50
순서에 관계 없이 6개의숫자만 맞으면 됨

4등 $1,000
다섯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맞으면 됨

5등 $100
네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맞으면 됨

6등 $10
세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맞으면 됨

7등(Win'fall) 윈타리오 5장
두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맞으면 됨

한국수출목표 급성장

'82 253억달러

(서울8일=연합)한국 상공부는 82년도 수출목표액을 253억달러, 수입목표액 311억3천만달러로 정했다.

이와 아울러 상공부는 8일 올해 수출목표액을 5억달러 인상하여 210억달러, 수입은 8억달러 감소하여 270억달러로 재조정했다.

따라서 82년도 수출입목표액은 재조정된 81년도보다 수출20.4%, 수입15.9%가 각각 증가됐다.

10월6일현재 수출액은 157억1천만달러에 도달했다.

한국정부가 수출 증가율을 20% 이상 책정한 것은 78년이래 처음이다.

상공부관리는 정부가 재획한 82년도 8% 이상 수출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출목표액 달성은 낙관할 수 없다. 예상되는 한국상품의 해외수요감소, 미국달러의 평가절상, 국제금융시장의 고금리가 장애가 되고있다.

사다트 암살시 시위大砲 한국산 수입무기라 보도

지난 6일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이 암살될때 사열대 앞을 통과하고 있던 이집트군의 소련제 트럭들은 한국제 대포를 끌고가던 중이었다고 LA타임스와 KTLA—TV 등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이 대포들은 이집트가 최근에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미국탄생이래 처음있는 백악관의 극적인 장면

◇미국의 전직·현직대통령 4명이 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의 장례식 참가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일 하오 백악관에 모였다. 매스컴은 미국의 대통령 4명이 같은 시대에 생존하기도 힘든일이지만 백악관에 함께 모이기는 더욱 힘든일이라고 보도했다. 왼쪽으로부터 포드, 닉슨, 레이건, 카터

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

김환진, 타이틀방어

로페즈에 판정승

◇8일하오 공개 스파링을 마친후 챔피언 金煥珍과 도전자 로페스가 포즈를 취하고있다。로페스는 키가 5㎝가량 커보였다。

(대전12일=연합) 세계권투협회(WBA)쥬니어 플라이급 챔피온 김환진 선수는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도전자 알폰소·로페즈 파나마선수와의 15회전 방어전에서 판정승으로 타이틀을 방어했다.

올해 26세인 김환진 선수는 작년7월 멕시코의 페드로·플로레스를 13회 K·O로 뉘어 챔피온이 된 이래 이번이 첫 방어전이다.

15회 전경기를 통하여K·O펀치를 날리지못한 두선수는 11회전까지 김선수의 계속적인 레프트·훅과 로페즈의 방어일관의 게임을 운영했다.

12회전에 들어서자, 챔피온 김환진은 전략을 바꿔 로페즈의 얼굴에 라이트, 레프트·스트레이트를 연달아 날리며 적극적인 공세를 폈다.

12회전 이후 승기를 잡은 김환진 선수는 계속 로페즈를 밀어붙여 13회전에서 로페즈를 다운 일보전까지 몰고갔다.

이번 승기로 김환진의전적은 22전20승2무승부를 기록, 로페즈는 46전37승8패 1무승부를 기록했다.

김환진 선수는 11월말일본의 카수오·토카쉬키 와 2차 방어전을 가질 예정이다.

대한항공 내년1월부터

서울-LA직행주4회로

대한항공(KAL)은 내년1월부터 서울—LA간 직행운항편을 주4회로 증편함과 동시에 출발, 도착의 운항시간을 낮시간대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KAL미주본사의 한관계자는 직행운항의 경우 LA공항출발을 하오1시로 정하고 서울도착을 현지시간 하오5시~6시로 맞추어 양지역 모두 승객이나 환송, 환영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항 스케쥴을 보면 LA에서 밤11시20분에 출발하여 앵카리지를 경유, 서울에는 현지 시간으로 상오7시30분에 도착하고있다.

이같은 경우에 LA에서 송영객등은 늦은 시간에 공항에 출영나가는 점과 서울에서도 김포공항까지 도착하지 위해 아침 일찌기 서두르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대한항공관계자에 의하면 이같은 승객들의 불편을 개선키위해 지난 수개월동안 연구검토해 왔으며 특히 조중훈사장도 지난 여름 미주방문에서 직행노선의 운항시간 단축과 이착륙시간의 조정을 지시해 왔다고 한다.

이 직행노선의 이른아침이나 늦은 밤시간을 피하는 운항시간 조절은 현재 타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도 KAL을 선택할 소지가 많으며 태평양상에서는 가장 빠른 KAL의 이미지를 더욱 높힐수 있다고 대한항공측은 분석하고 있다.

PLO중심 지역 폭발사고

민간인 사상자 3백여명

레바논 베이루트 서부 PLO중심지역에서 1일 220파운드의 강한 폭탄이 터져 83명이 사망하고 225명이 부상했다고 PLO가 발표했다.

PLO는 동 폭발사고로 PLO지도자는 피해를 입지않았으나 피해자 전원이 민간인이었다고 덧붙이고 동 폭발사고의 책임은 이스라엘측에 돌렸다. 한편 이스라엘 외무성의 한 대변인은 PLO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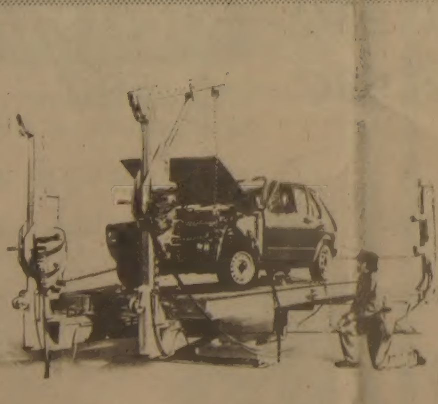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개업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BODY INC.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토론토니안의 의식구조〉 ③

정신노동자일수록 개인주의 경향

정당보다는 가정에 관심많어

자마이카로 휴가 여행을 간 25세의 한 상점 점원은 사람들이 마분지 상자안에서 기거하는 것을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번 여행은 이청년 에게는 캐나다가 세계에서제일 좋은 나라라는 믿음을 확신케 해주기에 충분했다.

그의 캐나다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이상한것이아니다.

이같은 결론은 414명 토론토니안들을 표본으로한 그들의 직업, 교육, 사회적 평가에 대한 태도를 캘럽여론조사가 밝힌 것이다.

토론토니안들은 연령이나 에트닉 그룹에 애착이 있기에 앞서 가정과 국가같은 오래된 가치관을 소유하고있는 경향이다.

저의 4명중에 3명의토론토니안들(73%)이「가정」에 58%가「캐나다」에"아주많이"애착이 있다고 말한다. (자세한 것은 도표참조)

토론토니안들의 정당에 대한 애착은 아주 미미하다. 오직 14%, 9%, 4%만이 각각 보수당, 자유당, 사회주의당(NDP)에"아주많은"애착을 가질 뿐이다. (이밖에 다른 조항들은 도표참조)

일반적으로 조국(캐나다)에 대한 애착도를 제외한 다른 조항들에 대한 견해는 젊은층과 연장자층 사이에 차이가 없다. 「캐나다」에대한 애착심은 젊은층 중에서도 18~24세의연령층이 다른 그룹보다 훨씬 뒤떨어 진다.

이번 조사는 대학교육경험자들의 달라진 가치관을 나타낸다.

한때 사회적 변화의 온상이었던 캠퍼스는 더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반응분석으로나타났다.

코뮤니티 칼레지에서 설계제도과를 마치고 현재오샤와 자동차공장에서 일하는 30살의 한 청년은 캠퍼스의 달라진 분위기를 "조숙한 사람들"에 돌린다.

"당신은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야한다. 학교에서어정어정 시간만 때울수 없다.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달라진 캠퍼스(분위기)

가치관의 분석은 사회와일의 평가를 다룬 12가지 설문에 대한 응답에 근거를 두었다.

약27%의 조사응답자가 다음과같은 설문들"근면의 댓가가 꼭온다", "사람은자기의 운명을 지배할수 있다", "의무는 쾌락에 앞선다", "경쟁은 사람을 탁월하게 만든다"에 동의했다. 이런 사람들은"엄격한 개인주는자들"부류에 속한다.

33%의 사람들은"사람들이 그들 자신에게 너무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나 사회에대한 관심이 적다", "캐나다는 부의 재분배실시가 제대로 되지않았다", "비지네스는 이윤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공공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데 동의했다. 이러한 부류 사람들은"사회인본주의자들"에 속한다.

나머지 40%미만의 사람들은 특별히 분리 지칭되지 않는다.

분석에 의하면"엄격한개인주의자들"은 대학교육을 받은 사업가나 행정관리들로 40~64세사이 의 1년에 3만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고, 자기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60년대후반과 70년대 초반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을 뒤바꿔 놓았다. 그당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사회인본주의자들"이고"개인주의"는 교육을 적게받은 노동자층의 생활방식 이라고믿어져 왔다. 지금은 그와 정 반대로 되었다.

중요이유중의 하나는 교육비 인상과 경제불황으로 재정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만이 대학교육의 특권을 누릴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요즈음캠퍼스가"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단편적 이유가 될 수있다.

여론조사결과 토론토니안들은 아직도 의무, 경쟁, 직업, 돈과같은 전통적인가치관(사회와 일에대한) 에 상당한 일치를 본다.

응답자의 94%가"직업은 사람의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데 동의했다. "요즈음 인간의 가치보다 돈에 더 비중을 둔다"에는 84%가 동의했다. "근면은 댓가를 가져온다", "현대인은 공동체나사회보다 자기자신들에 더관심을 둔다"에는 각각 85% 83%가 동의했다.

이보다 좀 적은수(72%)가 "사람은 자기운명을 잘 컨트를 할수 있다"에 동의했다.

애착도

당신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얼마나 애착을 가집니까?

	"아주많이"라고 말한 % Total	18-24	25-39	40-64	65+
가족	73	69	61	83	84
캐나다	58	43	50	70	71
온타리오	45	32	33	56	71
중산계급	34	33	27	41	37
노동계급	32	38	27	38	20
같은세대사람	30	31	19	39	34
같은 에트닉그룹	28	38	20	30	33
같은인종	27	32	19	31	30
직장동료	24	28	19	28	24
같은종교	21	20	15	26	23
이웃	18	13	10	23	31
보수당	14	7	8	19	27
자유당	9	20	7	7	4
사회주의당	4	4	5	1	13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재클린·케네디를 수행한"남성이라는 케네디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 모습. 재임스·후란시스가 케네디를, 재키·스미스가 재클린으로 분장한다.

새映画

성(聖)재클린 재현

CTV, ABC를 통해 방영

겨우 20년밖에 안된 애기인 이 영화가 전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장이다.

「크레오파트라」이래 세계에서 가장 유명세를 날렸다는 재클린·케네디·오나시스.

30세 넘은 사람은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이 유명 여류명사를 다시 TV를 통해 회고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 CTV를 통해 이미 방영됐고, 14일(8PM) 미국방송 ABC 의 채널(Ch7)을 통해 재클린 특집영화가 방영될 예정이다.

시청자가 바로 이 사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다. 즉 대부분의 시청자가 살아온 현대사를 나열해 준다. 이 영화속에서 멍청한듯 하면서도 총명했던 영웅 고 케네디대통령의 모습과 요염하면서도 완전한 숙녀 재클린의 모습을 되새길 수 있다.

오나시스 부인이 됐던 재클린은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비난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영화 속에서 재클린은 완전한 여성이다. 지(知)를 갖추었고, 정숙하고 훌륭한 아내요 자상한 엄마이다. 즉 성(聖)·재클린이다.

영화 속에서 재클린으로 분장한 배우는 TV영화「찰리스 엔젤」의 주역중 하나였던 달콤하고도 멋장이인 재클린·스미스.

이 찰리의 재키는 솜사탕처럼 아름답고 맑은 피부, 큰 눈동자, 작으면서도 완전한 미를 갖추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러운 것이 있다면 재클린 뿐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영화속서 재현된 케네디 부부의 파리 방문—케네디를 환영하는 군중들은 "재키 만세"하고 외쳐댄다. 케네디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내가 바로 재클린의 남편인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역설적인 자기소개를 한다.

3시간 동안 이 영화는 제한된 예산과 시간 속에서도 지난 20년의 재클린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日 섹스관광떠난老人 작[illegible]百76명이 死亡

(도쿄·UPI) 해외섹스관광에 [illegible] 일본노인관광객들 가운데 죽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일본마이니치 신문 영문판이 8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금년에 해외로 섹스관광을 떠난 일본사람들 가운데 관에 담겨 돌아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섹스관광객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섹스관광을 떠나는 일본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 노인들이 섹스를 즐기다가 흥분한 나머지 사망하기 때문이라고 한여행자직원이 설명했다.

작년에 섹스관광도중 해외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은 1백76명에 달했다. 이는 10년전의 사망자수보다 곱절이나 많은것이다.

동성결혼 허용하라

남성간 결혼 추방령 받은 호주인

"결혼은 기본권"

〈LA-CNS〉 오스트랄리아 출신 안토니 설리반(39)은 7일 연방항소심에서 동성간의 결혼도 법적으로 정당하다며, 전통적인 남·녀간의 결혼관념을 고치라고 주장했다.

설리반은 75년 미국시민권자 리차드 아담스와 결혼했으나 이민국이 같은 남성끼리의 결혼은 부당하다고 인정, 추방령을 내렸다.

설리반은 법적인 결혼증명을 얻기위해 항소심에 소송을 제기했다.

설리반의 변호사는 결혼은 기본권이며, 지난10년동안 결혼에 대한 관념이 이성간은 물론 동성간의 결혼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나바스 연방검사는 의회에서 결혼대상자를 남편과 부인으로 규정짓고 있다고 주장하고 의회가 이 의미를 변경시킬수는 있으나 현재로서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을 뜻한다고 말했다.

남자 우승 이상규 여자 우승 윤명수

—친선탁구대회—

캐나다탁구협회(회장 정영모)가 10일 웨스트·웃즈 학교에서 주최한 한인친선탁구대회에는 50여명이 열전, 남자개인전에서 이상규, 여자개인전에서 윤명수(키치너거주)씨가 각각 1등을 차지했다.

지난 4월 한인회주최 대회에서 우승한 이성기씨는 3위가 되었다.

단체전에는 에덴침례교회만 출전, 부전승으로 기록됐다.

경기전적은 다음과 같다.

◇남자개인전 : 1등 이상규
2등 승영순
3등 이성기

◇남자복식전 : 1등 김동천 이창오
2등 박남진 이성기
3등 최이락 김태신

◇여자개인전 : 1등 윤명수
2등 김영신
3등 이상순

神通力발휘를 갈망 이름도「가앗」改名

프레스노에 거주하는 전직 방송인 배릴 폴락 윌리암스(42)는 지난 6일 지방법원에서 정식으로 자신의 이름(성)을 가앗(GOD)으로 변경했다.

윌리암스는 이름을 가앗(하나님)으로 바꾸면 강력한 신의 힘을 발휘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암스는 6년전 콜배스티 모빌홈을 짓던중 종교적인 체험을 한후 부터 이름을 변경키로 작정했다고 한다.

그당시 윌리암스는 강한 전류가 온몸을 휩싸는 느낌을 받아 한동안 정신을 잃고서 새로운 체험을 했다고 말했다.

천민3만 佛敎로개종

印度, 가난벗어나려고

〈뉴델리-UPI〉 힌두교의 가장 낮은 계급인 불촉천민 3만여명이 천민이라는 출생계급에서 벗어나고, 가난과 핍박에서 해방되기 위해 동시에 불교로 개종했다.

뉴델리에서 5백마일 남동쪽에 위치한 나그퍼시의 천민들은 8일 1956년에 비슷한 이유로 거행된 개종식 25주년 기념식장에서 동시에 개종식을 가졌다.

1956년에도 가난과 핍박을 이유로 수만명의 불촉천민이 불교로 개종했었다.

최근 수년동안 많은 천민들이 차별대우와 기근으로 인해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로 전환하고 있다.

힌두교의 제1계급들은 길에서 천민들과 마주치기만 해도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며, 같은 우물을 사용할수도 없다고 규정짓고 있다.

김장준비를 위한

삼복식품 특별세일

화요일 영업 금요일은 밤12시까지

새우젓(육젓) 3.35¢ →2.75¢ (파운드)
멸치젓(간장) 3.95¢ →3.50¢ (파운드)
김장용 생굴 2.95¢ →1.90¢ (파운드)
김장용 고추가루 3.95¢ →3.45¢ (파운드)
육쪽 마늘 2.99¢ →2.59¢ (파운드)

※삼복식품 특유의 젓갈류및 밑반찬
⊙다른 품목은 다른식품점과 동일한 값으로 봉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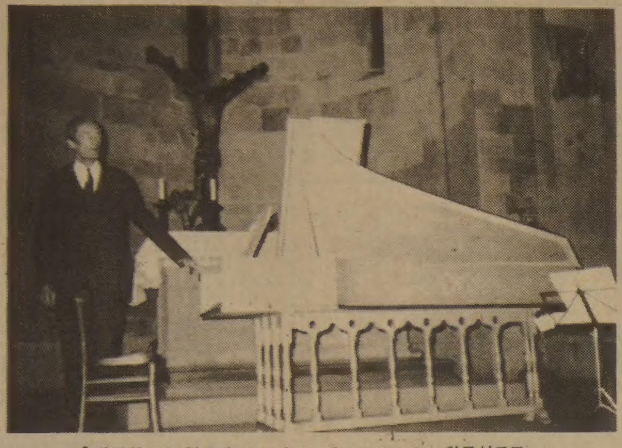
품질좋고 값싼 **삼복식품**으로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예술의 향기" (4)

성당에서 듣는 연주회

유 회 자(음악박사)


◇하프시코드 연주가 구스타프·레온하르트와, 하프시코드

이 아카데미는 세계각국에서 여러가지 언어를하는 학생들이 모여 들었지만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영어를 능숙히 표현하고 알아듣는다. 단지 이태리 학생들만 영어가 부족한듯 보인다. 독일이나 홀란드, 필란드등에서온 학생들은 영어가수준급 이상이다.

이태리가 역사는 훌륭한 것을 많이 갖고있지만 다른 유럽 사람들 보다는 언어면에서 한발 떨어지고있는 느낌이었다. 보통사람들도 영어를 할줄아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다.

세미나는 이태리말과 영어를 번갈아 가며 하기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공부할수 있었다.

「피스토이아」라는 도시는 이 주의 도청소재지며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역사적인 도시지만 아주 한적하며, 웬만한 곳은 걸어서 다닐수 있다. 시청광장에서 상가는 지나 호텔까지 또 아카데미에서 정거장까지 모두 10~20분 걸으면 되는 거리에 있다.

자동차는 이태리에서 생산되는 Fiat이 많고, 그것보다 큰 차는 버스를 제외하곤 하나도 보지못하였다. 모두 소형차들만 다니었다. 길도 소형차 둘이 들어서면 꽉 찰 정도로 좁고, 중앙선을 그어놓은 곳은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운전수들은 한국골목에서처럼 서로 눈치껏 운전하는것같다.

젊은이는 수쿠터를 많이 타고, 자전거나 수쿠터를타는 여자들도 종종 눈에띈다.

이곳은 하오1시부터 4시까지는 전통적으로 낮잠자는 시간이라 모든 상가와 은행, 사무실등이 문을 하오1시에 닫았다가 4시에서 8시까지 다시열어 저녁에는 사람들이 신작로로 나와 웅성거리며 쇼핑도가고 하는것 같다.

음악회는 9시30분에 시작하는데, 이날 저녁엔 세계에서 첫손꼽는 하프시코디스트 구스타프 레온하르트와 바록크 훌룻티스트 한스 브류겐의 2중연주였다. 음악회는 1850년에 만든 역사적인 올간이 아직도 존재해있어 이 아카데미의 모든 음악회가 열리는 성발토로메오 성당에서 한다.

성당은 좁고, 길고 천정이높은 14세기경에 지은로마네스코 스타일의 건물이다. 순 돌집이라서 무게가 있고, 약간 차가운 느낌을 주는듯 하지만 넓은 공간과 회색의 벽에 군데군데 보이는 성화는 묵묵한 위엄을 풍겨주기도 한다.

벌써 자리가 다 차서 맨앞으로 갔다. 뒤에 자리를 못찾은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와서 세면바닥에 앉는다. 나도 가지고간 책을밑에깔고 맨앞쪽 연주가들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잡고 앉았다. 연주가들의 숨소리마저 들을수 있는 앞자리에 앉으니 아름다운 음악을 더욱잘 감상할수 있었다.

세계적인 두 대가가 하는 연주라 정말 훌륭하였다. 큰 연주홀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아니고, 연주자의 숨소리와 손가락놀림까지도 하나의 음악이되어 같이 연주하는 아주 흐뭇한 실내음악 이었다. 강약을 낼수없는 하프시코드, 아주 보잘것 없는 작은 피리같이 생긴 레코더, 이두악기가 대가들의 손과 호흡을통해 나오는 선율은때로는 기쁨, 때로는 한탄, 때로는 빠르고 경쾌한 춤곡등 절묘한 표현이되어 이 높은 천정으로 길고긴 교회당 안으로 한없이 아름답게 펴져 나간다.

5번이나 나와서 인사 를 하도록 청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낸다. 이 두분이 연주한 곡들은 바로크시대 즉 지금부터 2,3백년 전에 작곡된 음악들이지만 20세기 현대인의 심금을 울리는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이게 바로 예술의 진미가 아니겠는가?

옛날 궁전에서 이음악을 듣던 귀족들 에게나 지금 이태리의 한 시골 성당에 모여서 듣고있는 시민들에게나 이 예술은 인간감성의 섬세한 모든 표현을 골고루 미치게하는, 눈에 보이지않는 힘을 갖고있지않는가!

이 힘이 바로 예술의생명 이리라. 나도 이 힘속에 한 분자가 되어 이 힘을 작은 부분이나마 이해할수 있게 되고, 감상할수 있게 된것에 뿌듯한 고마움을 느끼며 성당밖 찬 공기 속을 걷기 시작하였다.

(계속)

교 민 동 정

◆**유현승**(토론토 중앙도서관 분류과장)=캐나다 이민 13년간에 두번째 모국방문길에 올 다. 11일 출발, 3주간 한국에 머무르며 형제·친지들도 만나고, 각대학 도서관학과를 돌아보고, 한국책들과 한국음악 카셋트등도 구입하고, 11월초 귀임 예정이라고.

◆**이태준**(문인협회 재무)=여름에 스카보로(300 Kootevey Cres)에 새 집을 마련, 이사했으며, 오는 23일밤 문인협회월례회 를 자택에서 연다.

◆**서금찬**(목사, 한인장로교회 장년부 지도)=서울 서소문교회를 임시 목회중이다.

◆**배형도**(전 신용조합 이사장)=소속교회인 한인장로교회 교인친선골프대 회용 100달러 상당의 은컵을 기증했다.

추계낚시대회 낚시협회 주최

한인낚시협회(회장 정삼열)는 오는 31일(토) 상오9시~하오4시 벨우드·콘서베이션 공원(Bellwood Conservation Park)에서 가을 낚시대회를 실시한다.
(연락처 755-9902)

가정의 벗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⑮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설령 이런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든다해도 식구들이 바렌을넘어 딴곳으로이주해서 몽땅 버려야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북극의 감정은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고, 강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감정은 그들의 옛이야기, 노래와 실뜨기속에 강하게살아있다. 또한 이 감정을자기 의 생활에 이익이 되는 물건을 만드는데 이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예술이나 별 차이가 없다.

자연환경은 이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창작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지못하지만아직도 그들은 어떻게 미(美)를 창조하는지 알고있다. 그들은 어떻게 미를 창조하는지 알고있지만 또한 어떻게 즐기는지도 알고있다. 왜냐하면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자주 산등성이에 올라가 가만히 주그리고 앉아서 해가넘어갈때와 해가뜰때 변화무쌍한 자연의 빛깔을 몇시간이고 바라보는 것을 볼수있다. 또 이할미우트는 지나다가 미끈하게 잘생긴 족제비를 만나면 몇분이고 서서 바라보고, 또 예쁜꽃을 보면 그 찬란한 꽃속을 열심히 들여다 보는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하여지는 것들이다. 이할미우트의 말에는"아름답다"라는 귀절이 없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말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XI. 소년과 까마귀

그들의 역사보다 부분적으로는 전설및 현실과 합쳐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한 이야기들을 얘기해 보자.

그 세가지의 이야기—이것은 지나간 어느해, 사흘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다.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때 이할미우트가 과거를 상기할 때는 환상적인 것을 그려내는것같은 이야기같지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실지 모든 생활이 그렇게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첫째날은 구름 한점 없는 어느 구월이었다. 계속 불어오는 남풍은 이끼위로 무성하게 자란 난쟁이 버드나무 잎사귀가 햇볕에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다. 한마리의 까마귀는 이누이트

헤콰우는 강가에 벼랑처럼 걸려있는 바위에 매놓은 뒤뚱거리는 카약에 조심스럽게 올라탔다. 노를 몇번 빨리 저어서 빠른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슴냄새를 실어왔고, 남쪽의 평온하고 물이 흔한 수림을 떠나온 사슴들이 목이 말라 물 마시러 다닌 가파른 강둑은 반질반질 닳아있었다.

카약은 강어귀쪽으로 떠내려 갔고, 거기서 카쿠트·쿠라는 강위에 높이 떠서 한가롭게 원을 그리고 있었다. 까마귀는 사람보다 시력이 훨씬 좋지만 헤콰우도 눈으로 실지 보지 않아도 북극의 툰드라가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쿠마닉이 끝났다. 그리고 짐승의 똥냄새가 한결 심하게 공기를 진동시켰다.

이상하게 물 가장자리에 아주 흰 띠처럼 줄이 나있었는데, 그것은 갈색 강물과 시커먼 바위에 금방 눈에 띌만큼 대조적이었다. 이것은 일주일간 사슴떼가 이곳을 지나갈 때 강에서 빠진 털이 모여서 이루워 진 것이다.

강어귀에서 백여야드 떨어진 곳의 가파른 강둑이 갑자기 얕아지면서 낮은 평원이 헤콰우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노를 뒤로 저어 배를 잠시 멈추고는 바윗돌 사이로 저어갔다. 헤콰우의 창을 묶는 줄을 풀어 자루가 짧은 이 무기를 들어 창끝을 자기 입술 가까이하여 겨누면서 체크를 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앞에 있는 작은 나무에 대어놓고, 준비가 끝난 것을 흐뭇해하고 있었다. 그는 기다렸다.

삼분사분… 드디어 사슴이 왔다.

(계속)

블루어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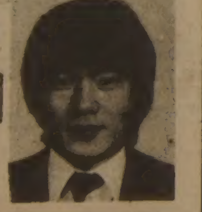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9:30AM~7AM
금·9:30AM~8PM
토·9: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주식회사 이훈모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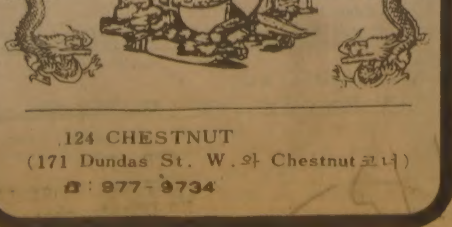
①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800, 렌트$400, 리스1년+5년
ARBITRATION CLAUSE 있음(히팅은 주인부담)
ASKING : $44,000

②버라이어티 스토아 맡아서 일하실분 구함.

221-2084, 225-1204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HUN MO LEE REAL ESTATE LTD.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PM~4AM
토~일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농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할사람을 구합니다.
☎ : 519-833-9827

디시워셔 구함 : 저녁6시~10시
시간당 $5.00, 저녁제공.
☎ : 532-5966 KAY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경험자에 한함 :
오후3시~밤12시, QUEEN과 DUFFERIN
☎ : 534-3338(아침9시~3시까지 전화) 미세스 김

20~40세 풀타임 또는 파타임 여사무원 모집 :
영어 능통하고 타이핑 경험자 우대함, 일이 쉽고 자유시간 많음.
SON BROTHERS태권도장
2188 BLOOR ST. W. (AT RUNNYMADE)
☎ : 763-1155

경험있는 풀타임 가게 헬퍼구함 : 오후4시~12시, 월 천달러 보장, 단 자동차 있어야 함.
☎ : 839-1879 스카보로 거주자 환영

캐시어 구함(EVENING PART TIME)
☎ : 767-0762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
시간당 $4 이상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 362-2300

DRESS MAKER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타 윙

사람을 찾습니다.
김경남(Kyung Nam Kim)
Date of Birth -Nov-28-1950
(1950, 11, 28일생)
연락처 : 문덕례(Duk Rae Moon)
☎ : 744-2082

경험있는 스위스 자수기계 OPERATOR를 급히 구합니다. 시간당 $5이상 핀치와 웨스톤 근방
☎ 746-0054

BOEKAMT MANUFACTURING INC.
REQUIRE FULL-TIME HELPER, FOR LIGHT ASSEMBLY WORK
MON. ~FRI. 8AM~4 : 30PM
APPLICANTS MUST KNOW SOME ENGLISH
APPLY IN PERSON
910 MATHESON BLVD. MISS.

매매및 양도

이주관계로 팝니다. 희망자 방문요
햄버거 FISH & CHIPS, 동양음식 겸한식당 :
주매상 2,000달러, 권리금 35,000달러
23 HELENE ST. N. MISSI.
☎ : 274-7010 CENTURY BURGUR

DONUTS SHOP매매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
55 KENSINGTON AVE.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성업중인 자동차 정비공장을 매매코자 합니다 :
오후6시30분이후 연락바람
☎ : 533-2157. 미스터 최

매 매
365일 컨비니언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PARKING하기 쉬운 중심가 에 위치, 시설완비 되있음. 다운페이 $20000에 단돈 $39500의 좋은 기회 L. VAN LIESHOUT R. E. LTD.,
☎ B) 705-457-2414,
705-457-2460 (Mike)
705-457-2071(Larry)
Haliburtun Ont.

다목적 용도를 지닌 빌딩 세일
● 극장, 음악당, 체육관및 다른 큰방등을 포함.
● 다운타운에서 가까움 YANKA REALTY INC.
연락처 : 537-4156
TOM SZYMANSKI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 530-0748 DAVID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사정으로 급매 합니다.
주매상 $2,900, 렌트 $300,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2988 LAKESHORE BLVD. W.

매 매
성업중인 스카보로 몰안에 있는 스모크 & 기프트 샾을 급매 합니다.
주매상 : 3000~3500달러
☎ : 281-9540

그린애플뷰티(양장점)매도
연매상 : 13만불, 리스 : 1년반+5년옵숀
렌 트 : $680+TAX & MAINTENANCE
순수익 : 연 $35000보장,
아스킹 : $35000+스탁
제인파크 프라자 ☎ : 766-6997 ASK, TANYA

매매
79년 캐디락(Fleetwo) A급,
Low Milage 4Door Full Option ☎ : 759-3923

콘도미늄 매매 또는 렌트 : 3베드룸, 1½목욕탕, 2car 파킹장소, 렌트 $750, 매매 $54,000, 오후2시 이후 전화요망. ☎ : 421-6016 MR. MASUDA

DRY CLEARNING PLANT FOR SALE
2 STORES GOOD INCOME
☎ : 922-2241(ROSEDALE AREA)

개인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PRIVATE HARDWARE STORE FOR SALE)
좋은 자리에 있음. ASKING $41,000.
더 문의 하실분은 791-8771, 9시에서 6시(월~토)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 : 791-8771 해밀톤

피아노 매매 : LESAGE피아노(아파트용 싸이즈)
액쎌런트 콘디숀
☎ : 741-5949 MRS. 민

성업중인 벡커 스토아 팝니다 :
1987 YONGE ST.
☎ : 484-0921

급매 : 개인사정으로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저렴한 가격으로 팔겠음.
☎ : 691-5360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
일본식 식당 : 85좌석, 라운지 :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rr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 집(902) 443-5789, 식당 : (902) 429-6155
라운지 : (902) 429-6955. MR. KIM

매매 ● 도나스 캐비닛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LOOK-SQUARE FOOT당 오직 2달러
컨버니언스 스토아 PLUS. 1년이 안된 건물내에 있음.
아주 긴 리스이고 독립적이며 실내장치가 잘 되있고 장래성이 좋음.
KEN MARESCAUX
A. E. LEPAGE(ONT.)LTD.,
☎ : 492-7333

집·방세·하숙

세놓습니다 : 2426 ST. CLAIR W. TOR. 1000 sq. ft. Store Full Basement, 2 베드룸 Apt. 스토아 : $400, 아파트 : $350
☎ : 635-7936(B), 221-9818(R)

사무실장소 렌트 : 대강 600Sq. Feet. 2층.
712 BLOOR ST. W.
☎ : 495-2172(크리스티와 블루어 앞)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Q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김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시설및 수리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터 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악 기 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퓻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피·김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기 타

SOME JEWELLERY쏘에쎄라
●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캐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순 탁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SINGER
● 전화주문 받습니다. ● 모든 종류 미싱수리, ●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니폰 · 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 · 카텐

가나안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라닝 : 카펫 · 소파 · 췌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블론디 딘 · 영 作
本社特約 · 連載漫畫

"오늘 사무실에서 어땠어요, 여보?" "사장이 심술부리고참을성없게 굴었어…" "꼬박 세시간동안 내게대고 호통을 치더구먼" "그래도 그만한 기분이 좋았기에 그정도로 끝나서 다행야"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理美容요금 業所마다 달라진다

公正去來室 17개組合·協會 카르텔禁止

藥濁酒·再生타이어·醫藥品 우유·세탁·寫眞料金도 풀어

조합, 협회등 각종 사업자단체를 통한 업자들의 가격및 料金談合, 경쟁을회피하기위한생산·출고조절과 판매지역할당등 경쟁제한行의 카르텔행위가 금지된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시행에따라 지난6월말까지 마감된 총1백80개 조합(2백40件)의 카르텔등록신청을 심사, 이중 아무런 法的근거없이 가격談合 또는 생산량과 거래지역 제한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줄 우려가있는 17개조합의 20개카르텔행위에 대해9일자로 등록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앞으로 등록거부된 사업자단체의 각종 談合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제재를 받는다.

觀光料·서적正札판매등은 검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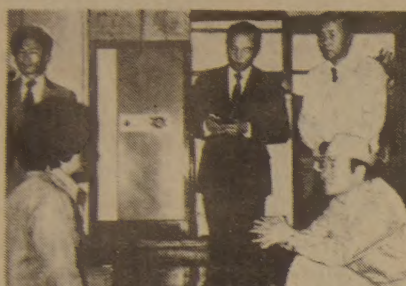
등록거부된사업자단체의카르텔행위는가격관련이▲사실상세무서에 대한 출고가신고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지도하는 대한濁藥酒제조중앙회와 대한酒精제조협회, 서울시멘트가공업협동조합의전선업체 入札가격결정 ▲판매가격이나 협정가격을 정하는 서울食肉軟제품제조농업자조합, 再生타이어에 대한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의 표준가격결정및 한국研磨紙石공업협동조합의 研磨紙石표준가격결정, 韓醫師協의사료가격, 한국유가공협회의 市乳·全脂분유가격, 구공탄연소기협회의 제품가격, 藥事會의의약품소매가격결정▲전국古物商연합회, 선박기관修理공업협동조합, 전기공사협회, 전기·통신공사협회등의 각종수리·보수비및 工役통신공사비보수비결정▲한국세탁업협회, 대한직업사진가협회, 대한이·미용사회의 각종요금결정등 17건이다.

그밖에 대한제분협회가 계절별로 原穀가공량을 회원업체간에 조절하는 생산량제한이 1건, 軟식품공업조합연합회가 두부판매지역의 道界침범을 제한하는 거래지역제한이 1건, 한국音盤협회가 부정음반이나 테이프취급업소에 공동으로 제품공급을 제한하는 상품종류제한이 1건이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육성등을위해·중소기업법이나 예산회계법에 특별히 규정한 각종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1건)과 공동購販사업(20건), 해운진흥법등기존특별법에서 허용한 각종 운송료·수수료결정은 등록을 허용, 곧 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했다.

한편 등록신청된사항중 신문月定구독료와 관광요금결정, 서적正札판매등 4개 단체의 6개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시장에 영향이 없는 수출업체의 카르텔은 등록의무를 폐지했고 수출용원자재의 공동구매등 수출관련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내시장영향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9일 새벽 三豊연탄을 시찰한 全斗煥 대통령이 숙직자에게 연탄제조과정을 설명듣고있다.

"煉炭熱量 높이도록 낡은製造시설 改善해야"

全대통령 새벽煉炭工場시찰

全斗煥 대통령은 공휴일인 9일새벽 서울城東區水色洞 三豊연탄 水色공장에들러 검찰에서 수사중인 연탄의 質低下문제에 관심을 표명, 연탄납수별 熱量에따른 배합률등을 구체적으로 살핀뒤 연탄의 熱量을 [illegible] 이상으로 제조할것등을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실험실겸 숙직실에서 숙직중인 [illegible]씨(26)에게 연탄제조과정을 묻고 각종시설이 불량한점을 지적,『경영자들이 무관심한 것 같으니 낡은 시설을 근대화내지 개선하기위해 서울시가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라』고 수행한 朴英秀서울시장에게 지시했다.

잠바차림의 全대통령은 이날 이공장의 실험실, 숙직실, 연탄연소시험시설및 샤워장등을 약40분동안 돌아본뒤 이어 [illegible]에서 [illegible]에 이르는 강변도로를따라 漢江주변을 시찰했다.

全대통령은 시찰도중 서울 [illegible]과 玉水洞두곳에서下車, 朴시장에게『漢江河床을 정리해 고수부지등을만들어 시민을위한 운동장 또는 공원으로 활용하고 하수처리장도 만들어 水質오염을방지하라』고 지시했다.

胡耀邦제의 中共、蔣총통 무조건招請

【北京9日UPI=聯合】중공당주석 胡耀邦은 9일 蔣經國 자유중국 총통에게 [illegible] 일문제를 논의하고 싶지않더라도 중국본토를 방문해달라고 직접 제의했다.

胡는 辛亥革命70주년을 [illegible]

[illegible]

무바라크 訪美초청 레이건、來年初에

【워싱턴8日聯合】레이건 미 대통령은 8일 故안와르·사다트 대통령의 뒤를 승계할것으로 보이는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부통령에게 내년초 미국을 공식방문해주도록 초청했다.

헤이그-埃外相 내일重大會談

【카이로8日AP=聯合】故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알렉산더·헤이그미국무장관은 오는 11일 카말·하산·알리 이집트외상과『중대회담』을 가질것이라고 이집트관영 중동통신이 8일 보도했다.

◇體典 입장식 리허설 체전개막을 하루앞둔 9일 서울운동장서있은 입장식 리허설서 선수들이 본부석 앞을 지나고있다.

美·蘇 "中東에 당장 劇的變化없다"

워싱턴 對埃기존友好관계 유지는 確實

모스크바 무바라크、사타트路線답습 관측

【워싱턴UPI=聯合】中東平和의 사도였던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죽음은 레이건美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협정이상의 그어떤 中東정책을 마련하지 않을수 없을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입부 外외교정책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이들은 이집트軍이 사다트의 후계자가된 호스니·무바라크부통령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기때문에 기존 美·이집트관계에 어떤 즉각적인위협이 닥칠것이라고는 보지않으면서도 그어느때보다도 가까웠던 美·埃관계가 사다트의암살이란 시련을 극복하고그대로 지속될수있을지 우려하고있다.

사다트가 가고 없는 지금 모든 관심은 차기 대통령이 확실시되고있는 무바라크부통령에게 집중돼있다. 무바라크부통령은 사다트 사망후 故人이 추구했던 전반적인 외교정책노선을 따를 것이라고 공약했다.

카터행정부당시 中東특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무성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솔·리노위츠씨는 캠프데이비드협정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서 무바라크부통령이 故사다트 대통령의 이니시어티브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찰즈·퍼시共和黨上院外交委員長은 무바라크부통령이 다른 아랍국들에 유화정책을 쓸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해럴드·손더즈 前국무차관보는『사다트死後의 中東은?』이라는 질문을 던져볼때 앞으로의 中東에 커다란위험이 돌발할지도 모른다며『우리는 캠프데이비드협정이상의 기반을 구축하지않으면 안된다. 무바라크 부통령은 아랍세계에 보다관심을 쓰고 팔레스타인人들의 大義를 과감하게 추구하라는 큰 압력을 받게될것』이라고 예측했다.

【모스크바8日AP=聯合】소련은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서거로 중동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일어나거나 소-이집트긴장관계가 정상화로 돌아설것으로는 보지않고있다고 정통한 소련소식통들이 8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사다트 대통령이 소련의 적이었으며 아랍세계의 배신자였음을 상기하면서 소련이 7일 수피·아부·탈레브 국회의장앞으로 보낸 조전의『무미건조함』이 바로 현재의 양국관계를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사다트의 후계자로 등장한 호스니·무바라크 부통령이 사다트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을것이며 또 그만한 능력도 없을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식통들은 또 이집트의새정권과 미국및 이스라엘간의 동맹관계도 사다트 정권때처럼 부드럽지는 않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사다트는 개인의 권위를 바탕으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수있지만 그의후계자는 국내의 반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소식통은 그러나『우리는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은 할것이지만 어떠한 커다란환상도 갖지않는다』고말했다.

소련은 또한 사다트저격범의배후에 대해서도 커다란관심을 보이고있는데 배후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사다트 체제의 계승여부가 결정될수있다고한 소식통은 말했다.

埃의 아랍圈 복귀 期待感 中東위기 새불씨될까 우려

아랍國

【베이루트AP=聯合】아랍국가들은 사다트 대통령의 피살로 이집트가 다시 다른 아랍국들과 화해를하여『아랍의 울타리』안으로 복귀하게 될것을 희망하면서도 그의죽음이 새로운 中東위기의 불씨가 되지않을까하는 불안도감추지 못하고있다.

아랍圈內 대다수 관영언론기관들은 아랍최대인구를 가진 이집트가 다시 아랍圈의 진정한 일원으로 복귀할때가 왔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신중한 아랍논평가들은 대부분 이집트의 새지도층이 故사다트 대통령의 정책을 고수해 나갈것으로 믿고있다.

埃회교도·警察 충돌 아슈트市서 경찰서攻擊 20여명死傷

【카이로8日UPI·로이터=聯合】사다트 대통령이 피격살해된후 처음으로 이집트 남부지방아슈트시에서 8일 회교과격파와 경찰사이에 유혈무력충돌이 발생, 최소한 10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내무성은 카이로남쪽 4백80km지점의 아슈트시에서 이날 하루종일 보안군과 무장회교과격파간에 시가전이 벌어져 수명의 경찰이 사상했다고 발표했으며 정부관리들은 최소한 10명이죽고 10여명이 부상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일단의 무장회교도들이 기관총을 난사하며 경찰서를 공격해 이를 점령했으며 다른 한떼의 회교도들은 자동차로 거리를 질주하면서 기관총을 무차별난사, 수명의 행인들을 부상케했다고 전했다.

내무성은 사다트 대통령이 피살된지 이틀만이자 4일간의 회교축제휴일 첫날인 이날의 유혈충돌이 경찰에대한「회교광신도들」의 발포로 시작됐다고 말했으나 목격자들은 경찰이 1년간 피살에 이어 선포된 1년간의가두시위금지령을 무시하고 공공장소에서 기도회를가지려던 회교도들을 단속하려다 충돌이 촉발됐다고 밝혔다.

아슈트市 완전鎭壓

【카이로9日AP·聯合】이집트 보안군은 8일 새벽부터 아슈트市의 전략적요충지점을 장악하고있던 1백여명의 회교과격파들을 완전격퇴했다고 9일 이집트관변소식통이 밝혔다.

社會漫評

"누가 날강도냐하면…"

베긴과 會談용의 埃무바라크副統領 팔自治協商 계속

【카이로·텔아비브8日AP·AP=聯合】호스니·무바라크이집트부통령은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그의 대변인인 오사마·바즈외무담당 수석국무차관이 8일 밝혔다.

바즈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우리는 베긴수상이 무바라크 부통령을 만나길바란다면 반대하지 않을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정부측이 그같은 회담을요구해 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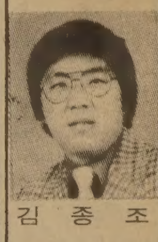
地平線

아득한 그옛날 중국말도 영어도, 그리고물론 한국말도 없었던시절 아마도 사람은 지구위 어디서나 비슷한 말로 뜻을 주고받았을 것이라고한다. 예를 들자면 섹스는「제그제그」, 도와달라는「아잇」, 사람은「아룬다」하는 식이다. 이것은 인간이「중요한 부분」만 살짝 가리고 살던 석기시대를 그린 영화「재미있는 석기인」에 나오는 15개의 말중 일부다. ▼지난7월13일 北京북쪽 만리장성에서는「마르코폴로」란 영화촬영이 시작됐다. 7백년전「동방견문록」이란 기행문으로 동서양을 이은 이탈리아의 위대한 장사꾼의 얘기를 미국, 중공, 그리고 이탈리아 합작으로 필름에담는 작업이다. 올겨울 영국에서는 최대규모의 일본 미술전시회가 열린다. 준비에만 6년이걸려 江戶시대 미술품 7백여점을 전시한다. ▼유엔의 번역국에서 일하고있는 조르지·세미트라는 사람은 30개국어를 통역하고, 36개국어를 번역할수 있다고한다. 섹스를「제그제그」라고 하던 때와 달리 지금 세계에는 약5천가지 말이 있다. 세미트처럼 전문적인 천재가 아니고는 서로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이다.「마르코폴로」라는 영화도, 그리고 영국의 일본미술전시회도「의사소통」의 한방법이다. ▼의사소통의 가장 확실한 길은 역시 책이다. 한해에 세계 각국에서 펴내는 5만가지 이상의 번역서(77년 유네스코통계)가 오늘날 세계에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소통이란 나라마다 말은 다르지만, 그말 밑에는 똑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말하자면「제그제그」라고하면「섹스」를 생각할줄 알기 때문이다. ▼『음악은 뜻이 없는 말이요, 신화는소리가없는 말』이라고 말한것은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였다. 그러니까「제그제그」라는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석기시대말은 몰라도 베토벤의교향곡5번을 듣고받는느낌은 다같은것이다. 「한국미술 5천년전」이 미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것도 같은 이치에서라고 할수있다. ▼『우리는 원시인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단순히 주사위의 다른면으로 돌려졌을 뿐이다』-내일 서울에오는 레비-스트로스의 관심은 모든인간과 사회에 공통된「보편성」을 구조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 그에게는 현대인과 원시인이 똑같이 지구위에 살고있는 모든인간과 그사회가 공통된「인간성」위에 서고있는 것이다.「개성」을 뒤집어서「보편성」으로 이해하는 태도다. 사르트르이후 프랑스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그의 서울방문이 기대가 크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53
은: 온스당 US 9.7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낙엽이 한잎 두잎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쌀쌀한 겨울이 성큼 다가 오기전에
입는 보석, 밍크를…….
올 겨울을 훈훈하게 보내시지
않으시겠읍니까?
●한벌의 밍크코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급 밍크스킨+COLLAR MATCHING+CUTTING+SEWING입니다.
30년 경험의 기술자들이 위의 것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읍니다.
☆오더 메이드 전문
록키모피
315 ADELAIDE ST. W. 2nd Floor, TORONTO
TEL: 366-4497
월~금: AM10:00~PM5:00
토: AM10:00~PM2:00

아라파트 訪問 앞두고
난처해진「日本外交」

全方位外交 속셈…사다트暗殺로 차질

對중동兩面策 찾다
돌발사태…名分잃어
지나친 強硬에 日입장困境우려

【東京9日·宋孝彬특파원】 사다트이집트 대통령의 돌연한 사망으로 일본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아라파트의장의 방일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12일로 예정된 아라파트 의장의 일본방문은 형식상으로는 팔레스타인 우호의원연맹(회장 木村俊夫)이 초청한것으로 돼있지만 사실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속에 일본의독자적인 對중동외교의 돌파구로 마련된 것이다.

당초 일본정부는 팔방미인식 對중동외교의 일환으로 12일에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아라파트의장을, 오는 11월9일에는 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을 초청, 양손에 떡을든 형태의 중동초청 적극외교를 시도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중재역할로 독자외교의 전기를 마련하려는것이 일본의 목적이었다.

스즈끼수상은 오는14일 아라파트의장과 회담을 취소할것을 고려했으나 이미 협의가 끝나 일정을 변경할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수상관저 아닌 국회에서 만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미야자와관방장관은『北京방문때 사다트암살을 환영한다고한 아라파트의장의 발언은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하며 아라파트의장의 감정자세를 견제했다.

일본의 對중동외교전략은 팔레스타인의 민족자결권은 인정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승인하는 한편 이를 달성키 위해 필요한 평화교섭에 PLO를 참가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래서 아라파트의장은 일본―팔레스타인 우호의원연맹의 초청으로, 사다트 대통령을 국빈으로 일본에 불러들여 양측 주장을 듣고 중동평화에 중재역할을 하는 방안을 찾으려했다.

대립되는 양자를 초청하여 중재함으로써 아랍각국과 이스라엘 이집트등 이해가 심한 중동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라파트의장의 방일은 PLO를 과격집단으로 경계하는 미국과 이스라엘그리고 일본의 일부정치인들의 강력한 반대를 누르고 서방진영으로는 처음 실현했다는 점으로 눈을끈다.

그러나 뒤이어 있을 예정이던 사다트 대통령의사망으로 초청외교는 균형과 명분을 잃게되었다.

스즈끼수상은 14일 아라파트의장을 만나 회담함으로써 사실상 정부빈객으로 취급하는 형식을 취하려하고있지만 속셈으로는 아라파트 의장이 너무 강경한 자기주장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일본의 입장을 곤경에 빠뜨리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다트 대통령은 PLO와의 평화교섭에 응할생각이 있었고 사우디황태자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새평화구상을 제안할 계획으로있어 사다트 대통령이 사망하지않았더라면 일본의 對중동全方位외교는 실효를 거둘수도 있었다.

이러한 일본외교의 목표가 사다트 대통령의 돌연한 암살로 착수도 하기전에 좌초한격이 됐다.

일본은 초청한 손님을 마다할수도 없는 딱한 형편에서 아라파트의장의 환영준비에 분망하다.

◇아라파트議長

大型프로젝트商談 진척
韓·아세안회의 精油工場등 1百여개…經協발판굳혀

국내대기업들은 서울서 열리고있는 제3차 韓·아세안경제지도자회의기간중 정유공장합작, 에너지및 자원개발, 건설및 플랜트수출, 교역증대등 1백20여개 대형프로젝트에관한 상담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등 아세안 경제협력을위한 발판을 굳힌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중에 국내기업들이 벌인 사업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現代=印尼와 정유공장합작추진및 선박수주 송전선계약 목재가공합작을 추진중이고 말레이지아와는 에너지개발협의, 페낭橋건설수주 용진출등을 모색중. 싱가포르및 필리핀과는 아세안카개발문제를 협의,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등 총10개 사업을 추진중.

▲三星=印尼와 항공엔진정비및 합작TV공장, [illegible]과는 원유도입및대추진, 교역증진등을 협의. (총8건)

▲大宇=印尼와 부키트·아삼석탄채굴운반시스템건설및 농약제조, 말레이지아와 무역합작회사설립등을 추진하고 AIS공사입찰참여를 협의중. (총12건)

▲럭키=印尼와 석탄·석유개발, 말레이지아와 석유화학프로젝트진출, 泰國과 가전제품공장건설등을 모색중 (총9건)

▲雙龍=印尼와 도로공사, 말레이지아와 건설진출방안, 싱가포르와 1백층빌딩 공사등을 추진중. (총11건)

▲曉星=印尼와 타이어합작공장건설, 말레이지아와원목개발, 필리핀과 중전기시설수출을 협의 (총10건)

▲碧山=아세안각국과 素錢수주등 협의 (총10건)

▲國際=印尼와 합판플랜트, 말레이지아와 공작기계류 수출추진을 마무리짓고있다. (총5건)

▲大林=印尼와 두바이 정유공장및 바다 LNG화장공사, 말레이지아와주택건설, 싱가포르와 정유공장시설공사등을 추진중. (총8건)

▲鮮京=印尼및 말레이지아와 목재및 합판공장합작투자, 泰國과 수출증대를 꾀하고있다. (총6건)

▲三煥=印尼와 고속도로공사, 싱가포르와 건설협력방안을 모색중. (총8건)

少年犯72%. 家庭문제고민
金泉교도소調査, 生活苦 40%으뜸

【金泉=】 [illegible]

流星의 賦

何處秋風至 ②

<20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숙랑이 말하지 않았지만 이영은 계남을 둘러싼 사태를 짐작했다. 계남을 그대로의 자리에 두는 건 위험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원래 계남을 승진시키는데 배후에서 움직인 사람은 이영이었던 것이다.

한편 계남은 그런 소문을 조작해낸 장본인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졸이나 동배를 앞에 드러내 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으며 의심이 간다고 해서 따져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십북으로 있는 공신보를 비롯한 몇사람의 군졸에게 통정을 하고 협력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부탁을 받은 그들로서도 결코 신나는 일이 못되었다.

계남이 눈에 보이게 수척한 몰골로 되어갔다. 그러한 어느날 이영이 계남을 찾아와서 말을 걸었다.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데 들어주겠는가』

『무슨 일입니까』

『관직을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하겠네』

『그건 당분간 어렵겠읍니다』

『왜 그런가. 듣자니 사행으로 승진하는 것은 말만 있고 실행이 되지않는 모양 아닌가. 그것만 해도 불쾌한 일일텐데 현직에 그냥 있어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는가』

『아닙니다. 당분간은 이 자리에 그냥 있어야 하겠읍니다』

계남으로선 지금의 자리를 떠나면 소문을 조작한 놈을 찾아내기가 힘들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래야 할 이유가 뭔가』

하는 이영의 질문엔 바른대로 대답할수가 없었다.

이영으로선 삼부와 짜고 계남을 다른 자리로 옮겨버릴 수도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계남의 동의를 얻고 싶었던 터였다. 그러던 차 이영의 머리 속에 하나의 계책이 생겼다.

『자네 정여립을 기억하고 있지?』

『물론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자가 드디어 역모(逆謀)를 시작한 모양이다』

『옛』

『그래서 너를 필요로 한다. 너를 당장 암행어사(暗行御史)로 등용할 순 없지만 모든 직능과 차비, 행세하는 권능에 있어선 암행어사와 똑 같이 대접할것이니 자네가 원하는대로의 하룡을 해주어야겠다』

계남이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정여립을 때려잡는 것이 자네의 숙원이 아니었던가. 율곡의 원수를 갚는데도 좋은 기회이다』

다른때 같으면 좋아라고 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달가운 심정으로 될수 없었던 것은 스승의 원수는 갚을 수 있으되 어머니의 원수는 어떻게 하느냐하는 마음에서 였다.

이영은 자기의 권고를 집요하게 되풀이 했다. 계남이 물었다.

『정여립은 무관직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직능을 마련할수 있읍니까』

이 질문엔 이영이 솔직하지 않을수 없었다.

『내가 맡아 있는 직능이 있다고 하면 오직 한가지. 조정에 대한 역모를 살피는데 있다. 이 일에 관해선 내게 전권(全權)이 있는거나 다름이 없지. 그러니 내 소청을 들어주게나』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墓地는 無名勇士碑 아래에 이집트군인과 노동자들이 카이로근교의 무명용사비 아래에서 故사다트대통령의 임시묘지건설작업을 하고있다. 【카이로 9日UPI電送=聯合】

사다트 暗殺배경지목「回敎형제단」
낫세르暗殺 시도 한적도

【카이로8日AP=聯合】故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저격사건의 가장유력한 용의자로 믿어지고있는 회교형제단은 이집트정통파 회교단체중의 하나로서 초기에는 사다트 대통령과 밀월관계를 유지했다가 후에 적대관계로 돌아선 단체이다. 지난1936년당시 젊은교사 하산·반나가 이집트동북부 이스마일리아에서 창설한 이단체는 당시의 파루크왕정과 잠시 우호관계를 가졌다가 이내 불화한후 준군사조직을 결성했으며 이조직은 지난1948년의 아랍·이스라엘전때 영국군 기습을위한 특공작전에 참여하기도했다.

이 단체는 후에 대통령이 된 가말·압둘·낫세르를 암살하려다 실패해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는데 주요지도자들은 교수형을 당했으며 그밖에 수백명의 단원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기도 했다. 낫세르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사망한후 집권한 사다트 대통령은 이들 투옥된 회교형제단원들을 석방했으며 이로인해 사다트 대통령과 회교형제단은 처음에는 밀월관계를 유지할수 있었다.

그러나 回敎法을 부활하라는 回敎형제단의 요구를 사다트 대통령이 거부한후 양자관계는 냉각되었으며 사다트 대통령이 77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캠프데이비드중동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이 맺어지자 급기야 양자관계는 파국에 이르렀다.

美, 사다트身邊보호 助言했다
暗殺전날 CIA도 陰謀통고

【뉴욕·워싱턴8日AP=聯合】미국은 지난74년이래 故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에게 신변보호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왔다고 뉴욕·타임즈지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사다트 대통령에 대한 수동적 경호지원을 넘어 직접 위협의 근원을 밝혀낸적도 있었다고말했다.

뉴욕·타임즈는 前카이로주재美대사 허만·F·에일츠씨의 말을 인용,『사다트대통령은 경호에 관해 아주 숙명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경호문제에 대범했으나그의 개인 보디가드와 경호원들은 미국의 지원을 희망했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1974년 미비밀정보관리들이 대통령의 이동 입장과보호 긴급소개절차등에관한 기술을설명함으로써 미국의 對이집트 경호지원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後繼者 무바라크
곳곳에 敵수두룩

【카이로8日UPI=聯合】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부통령은 최고권력의 승계와 함께 사다트 대통령이 쥐어지고 있던 과제들도 고스란히 인수해야만 할것이다.

무바라크 부통령이 지난7일 자신을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한 의회의 결정을 수락하면서 사다트 대통령의 정책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힌점은 그역시 전임자와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적』과 맞서게될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장保安體制 구멍있었다
즉각應射커녕 도망가기만

【카이로 8日 AP UPI=聯合】故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암살은 그의 저격당시 대통령경호원과 보안군들이 제트전투기들의 곡예비행에『정신이 팔려』대통령경호보다는 하늘만 쳐다보다가암살자들의 충격에 제대로반격하지못한점등 이집트의 전반적인 보안체제에 커다란허점을 드러냈다.

故사다트 대통령의 피격을 직접 목격한 이집트주재 많은 외국 무관및 기자들은 암살자들의 공격에 대한 이집트 대통령경호원과 보안군들의 반응에 매우 놀랐다면서 경호원들 가운데 암살자들의 급습에 즉각 응사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총소리에 놀라 대통령을 보호하기보다는 대통령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무기를 쏠생각조차 않고 멍청히 서있었다고 말했다.

蘇, 波카니아 逐出계획
強硬派 울조브스키를 後繼者로

【모스크바8日UPI·로이터=聯合】소련은 폴란드의 동구사회주의체제 이탈을 사전봉쇄하기위해 자유노조의 활동을 강력히 견제하는 동시에 당제1서기 스타니스와프·카니아를 축출하고 대신 친소강경파인 스태판·올조브스키를후계자로 옹립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모스크바의 한 서방고위외교관이 8일 말했다.

소련문제에 정통한 이 외교관은 이날 익명을 전제한 UPI통신과의 회견에서 소련이 현재 가장 염려하는것은 카니아가 폴란드위기를해결할 능력을 갖고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이라고 말하고 그의 경질은 빠르면 다음주중에 실현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외교관은 소련이 지난7월 폴란드공산당 긴급전당대회때에도 공공연하게 카니아를 축출하려다 실패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최근 소련의 對폴란드정책 검토과정을 살펴볼때 카니아축출움직임이 다시 활성화되고있다고말했다.

그는 또 동구권사상처음으로 민주선거방식에 의해 당제1서기로 선출된 카니아를 축출하려는 소련의 음모는역시 오는14일 시작되는 이틀간의 당중앙위전체회의에서 친소공산당원들을 동원, 카니아체제하의 무정부상태및 그의 현상타개능력에 회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大領이상 介入가능성
이스라엘, 사다트暗殺 관측

【런던9日AP=聯合】이스라엘의정보전문가들은안와르·사다트이집트 대통령 암살자들이대령급이상의핵심적인군고위장교로부터비밀지원을받았던것으로 믿고있다고 런던의더·타임즈지가9일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스라엘정보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대통령암살단이 거사전에 군사퍼레이드·시나리오의 구체적내용과 특히 제트기편대가 사열대상공을 지날무렵 사열대에서 제일 가까이 있을 차량을 완전히 파악하고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정보전문가들은 암살단이 이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냈음에 비추어 이들이최소한 대령급장교와 내통했음에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정보소식통들은그러나 이 암살음모에 무하마르·가다피 리비아국가원수가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단서는 아직 잡히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西方首腦 대거埃에
사다트國葬 참석차

【텔아비브8日綜合=聯合】오는10일 거행될 故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장례식에는 지난 수년이래 中東에서는 가장 많은 서방지도자들이 모인다.

미국은 8일 알렉산더·헤이그국무장관을 단장으로 리처드·닉슨, 제럴드·포드및 지미·카터등 전직 대통령3명과 의회지도자들로구성된 대규모 고위조문사절단을 카이로에 파견키로 함으로써 이집트의 새지도층에대한 지지와 가장 친밀한아랍우방국과의관계지속의지를표명했다.

프랑스는 프랑스와·미테랑대통령이 로베르·바뎅테르법상등을 이끌고 직접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엘리제궁이 이날 발표했다.

이스라엘, 非常警戒조처
이집트空白계기…PLO소요 대비

【텔아비브8日AP=聯合】이스라엘은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암살에 뒤이어「비상경계조치」를 취했다고 라파엘·에이탄 이스라엘군참모총장이 8일 밝혔다.

에이탄참모총장은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스라엘은 사다트 대통령 死後 팔레스타인게릴라의 활동이 강화되고『아랍국가들에서 소요가 일어날가능성』을 우려하고있다고 말했다.

에이탄 참모총장은 리비아가 이번 사건을계기로 이스라엘에 대한 호전적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같은 가능성을 생각해야한다고 대답했다.

메아리

50년대말 東南亞 한倂熱의 섬나라신사가 서울에 와서 알게된 한국신사 몇몇과 포커게임을 벌인끝에 한시간도 채못되어 수천달러의 돈을 잃었겠다. 분을 참지못한 그는『당신들이 앞으로 내나라에 오기만 해봐라. 그때 크게 혼내줄테다』하면서 툭툭털고 자리를 박찼다는 것이다.

그 외국사람은 한국노름꾼들이 어찌나 게임을 초속도으로 진행하는지 그제까지 그런 거친 놀이는 해본일없는터에 정신차릴수없어 엄청난 큰 損財를 한것이 마치 사기에 걸렸던것같은 심정으로 그런 욕설을 했던것같다고 당시의 관계자는 회고하였다.

관훈상제에 참여한 아는사람끼리의「섰다」판 모습을 들여다 보아도 그런 노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실로 현기증이 날정도로 스피디하다. 보이지는 않으나 참가자들의 흥분의 熱氣를 그속도는 반영하는 것이리라. 「上終價 아니면 下終價」라는 말은 우리나라 증권시세를 상징적으로 비꼬아 하는 말처럼 되고있다. 갑오투식이 엊그제는 上終價를 치다가 오늘은 下終價를 친다. 아니 심지어 상오장에는 上終價였다가 하오장에는 下終價를 치는 극단의 경우마저있다. 설마 한사람의 고객이 그런 변덕스러운 거래를 하는것은 아니겠으나 고객집단을 한데 묶어서 생각하면 아무래도 우리들의 흥분과 격정은 유다른것같다. 정열적이라고 定評이 난 서양 어떤 나라에서는 풀어진 구두끈을 죄기위해 허리를 굽히노라면 삽시간에 行人들이 구름같이 몰려서 무슨 구경거리가 있나하고 호기심에차서 기웃거린다 한다. 서울거리에서도 이런 정경은 드물지않다.

激情과 興奮

이 熱氣·흥분·호기심이 어떤 좋은 일에 발산되면 거기서「하면된다」는 우리의 신화가 창조될수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치 불을 타는 처녀와도 같이 그 행동이 훼훼騷이되, 그 훼훼이격정으로차 있다는것은 위생상으로도 나쁘고 결과도 건설할수가 없는 것. 마치 駿馬는 용한 御者가 타면 천리를 달리나 서투른 御者는 떨어져다치는것과 한가지일께다.

當同買氣니 失望投賣니하는 표현에 담겨있는 우리 증권시장의 生理는 바로 激情속에서 빚어지는 소용돌이에 비유해야하겠다. 거기에는 어른스러운 맛이라고는 풍기지 않는다. 88년의 民族大事를 앞두고 이제부터 우리모두 차분하고 점잖고 슬기로움을 몸에 배어 익혔으면. 그래서 증권시장에서도 흥분은 禁物인것이다.

對사우디 警報機 판매
非常조항 적용案 고려
레이건, 議會의 강력反撥에

【워싱턴9日UPI=聯合】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의 對사우디아라비아판매가 의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對외무기수출통제법(AECA)의 비상조항을 적용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경보기판매를 단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미상원 공화당소식통들이 8일 전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사다트 대통령사망으로 의회내 여론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예외적 방안이 현재『적극적』으로 고려되고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GRAND OPENING SPEC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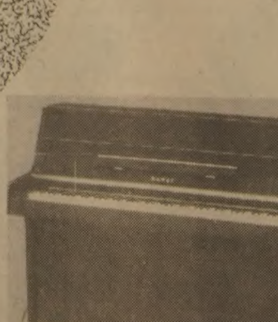
"개업특별 할인세일"

기간 : 10월31일까지

(*)UPRIGHT PIANO

KL-702

안녕하십니까?
교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속에 날로 번창하고 있는 저희 KAWAI KEYBOARD센터는 금번 HILLCREST MALL안에 또하나의 KEY BOARD 센터를 개설하고 여러분께 특별할인 봉사코저 하오니 계속 많으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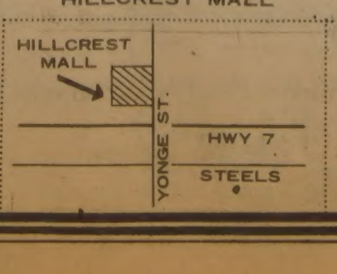


CE-7,
(OPEN WALNUT)
REG. $3,125
SPEC. $2,685

(*)GRAND PIANO

KG-1C
REG. $8,995
SPEC. $7,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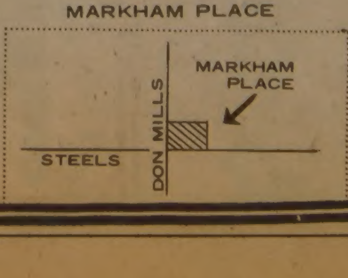
HILLCREST 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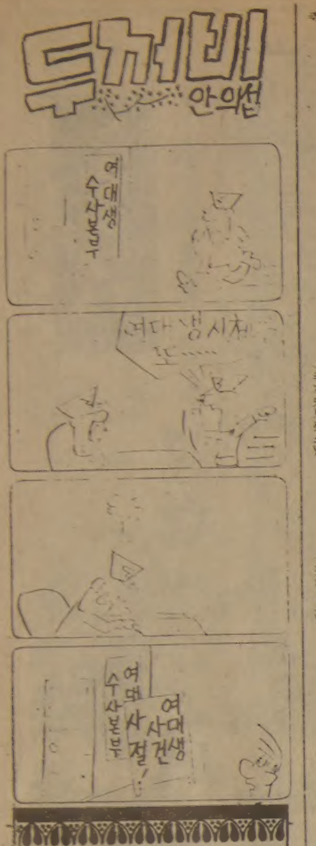


대표 : 윤 호 섭
전화 : 883—9407, 881—8211
세일즈 매니저 : ALLEN DUMA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普門寺 女住持·총무 自殺

무리한 寺勢확장… 10億빚져 고민

劇藥먹고… "信徒·債權者에 미안하다" 遺書

◇주지스님등 고위간부들의 자살사건이 일어난 普門寺

◁주지宋惠榮스님

◁姜桂月스님

동양유일의 비구니종단인 대한불교 普門宗의 대표사찰인 普門寺주지, 총무등 3명이 무리한 사세확장으로 진 부채로 고민하다 음독자살을 기도, 주지와 총무등 2명은 숨지고 한명은 깨어났다.

9일 하오11시께 서울城北區普門洞3街168 普門寺 내 주지스님방에서 주지 宋惠榮스님(71·여·속명·宋順禮)·총무 姜桂月스님(51·여)·姜총무의 상좌승 金[illegible]스님(27·여)등 3명이 박카스병에 극약을타 마시고 중독돼 신음하고있는것을 姜총무의 동생 姜千[illegible]씨(47·서울城北區普門洞3街168의 11)가 발견해 병원에 옮겼으나 宋씨와 姜씨는 9일 상오3시께 숨졌다.

姜千[illegible]씨에 의하면 이날 절의 연락을 받고와보니 주지방에는 2개의 빈박카스병이 흩어져있었고 宋주지는 가벼운 신음을하고 있었으며 姜총무는 이미 의식이없이 쓰러져있었고 金스님이 姜총무의 등을두드리고 있었다는 것.

방안에 있던 약병에서 고약한 약냄새가 나는것으로보아 음독한것으로 직감한 姜씨는 경찰백차를 불러 곧高麗大부속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에온 3명의 비구니들은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宋주지는 9일 상오3시6분, 姜총무는 상오3시42분 각각 숨지고 金스님만 가까스로깨어났다.

宋주지의 조카인 車德寶스님(48·여)에 의하면 宋주지는 절의 부채가 많은것을 비관, 평소 『죽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한탄해왔다는 것.

또 지난3월부터 신도로서 총무를 맡아온 田溶福씨(49)도 부임때 총무스님 姜씨로부터 『부채가 많아 고민이다』 『이런 고통없이 죽을수가 없을까』라는 말을 들어왔고 宋주지로부터도 『71년부터 불사를 짓느라 부채를 져 고민이다』는 말과 함께 지병인 신경통등을 고민하는 말을 들었다는것.

普門寺 스님들에의하면 주지 宋스님은 지난45년부터 이절의 주지를 맡아오면서 사세를 확장, 普門宗의 대표사찰로 키워왔는데 지난70년에는 慶州 석굴암과 꼭같은 석굴암을 普門寺에 세우겠다며 빈손으로 1억원이상의 공사를 시작하는등 무리한 확장을 시행해오다가 약10억원의 부채를 지게됐다는것이다.

宋주지는 대학노트 10페이지에 자신의 일생과 자살동기등을 밝히는 유서를 남기고 기도했다.

유서에는 8살때 출가, 李亘坦스님을 만나 탁발한 이후 지금의 普門寺를 키우기까지의 비구니로서의 역경과 자신이 분에 넘치는 의욕으로 불사·확장을 피하다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됐다는 점, 그리고 신도 채권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써있었다.

해설

東洋유일의 비구니宗團

戒律깬 탑골의 「僧房悲曲」

「살생금지」라는 불교계율의 금기(禁忌)를깬 집단자살 사건이 생긴 普門寺는 비구니들만의 탑골승방으로 더 잘 알려진 금남의 곳.

8백66년의 역사를지닌 普門寺에서 창건이래 가장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10일 상오 두스님의 빈소에는 평소 두스님의 불도(佛道)를 기리던 동료스님들과 신도들의 조문이 줄을 이었다.

普門寺는 高麗 肅宗10년(서기1천1백15년)에 [illegible]國師에 의해 비구니(比丘尼) 수련장으로 처음으로 창건됐다.

그후 李朝 英祖때 [illegible] 대웅전 [illegible] 중건되는등 수차례의 중건 [illegible] 화고 있었다고 전한다.

[illegible]殿, 普光殿, [illegible]門등을, 72년에는 [illegible]園, 72년에는 석굴암을 신축하는등 옛날의 普門寺를 현재의 普門寺로변혁시켜 놓았다.

두스님의 비극은 무리한 사업확장에서 시작됐다.

[illegible] 석굴암과 그보다 같은 [illegible] 여지의 몸이로단 [illegible] 시작하기 [illegible] 정된 석굴암건립은 사전에 사계의 권위자로 준공위원회까지 지 설립, 조각, 설계등 총감독은 서양화가 [illegible]씨가 맡았다.

宋주지는 유서에서 30년도 더 걸려서 [illegible]

석굴암大役事가 불씨

高麗때 創建… 재산30億

건이래 해방을맞은 45년현재의 宋주지스님이 들어오면서 사세는 날로 확장, 지금은절의규모나 시주액으로보나 국내 굴지의 사찰로 변모했고 우리나라 불교를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는 정규관광코스에드는 명승지가 됐다.

8세때 출가해 충남大德의 東鶴寺에서 李亘坦스님의 상좌로 불가에 몸을 담은 宋주지는 취임이후 70년에는 極[illegible]

「시주돈이 트럭으로 실려나온다」는 소문까지 났던것.

그러나 석굴암의 발원을시작하면서 시주돈은 점차 줄어들었다는게 절 주위에서들리는 얘기다.

71년 초파일인 6월16일3년간의 대역사끝에 점안식(點眼式)을 가진 석굴암은 공비만도 1억이넘게 들었다고 전해진다.

宋주지스님의 독단으로 결

한때 普門寺일대 가게들은 씀씀이가 큰 스님들이 찾아오면 주인들이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하곤했다. 큰 제사를 올리면 6~7백만원의 돈이 들어와 스님들이 수표를 수북히 넣고 다녀 항상 현찰거래를 해왔다는것이다.

普門寺는 엄청난 절고유의 재산으로도 소문이 나있는데 현재 普門시장에 19개의상가가 있고 절 주위에도 목욕탕이 있고 3층건물의 施療園, 4층건물의 普門불교학생회관등 모두 30억이넘는다는것.

普門寺를 잘아는 한주민은 金浦에도 수만평의 논이있어 가을이면 쌀이 트럭에 실려 절로 들어간다면서 한때는 [illegible] 수업에도 관계했다고전했다.

그러나 정확한 재산은 워낙 주지스님과 총무등이 운영권을 쥐고 있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비구니로서 남자에 못지않은 활동력을 보여온 宋주지 스님은 검소하기로도 유명한데 宋주지가 다리가 불편한데도 자가용도 없이다녔고 3끼니 반찬을 우거지국으로 때웠으며 누더기옷을 걸치고 다녀 「걸레스님」이란 별명도 얻었다.

원래 조계종산하로 있다가 72년 독립해 普門종단으로개창한 普門宗은 종정으로 전 正覺寺주지 鄭明珠스님(92)이 앉아 있지만 실권은 宋주지가 가지고 있었다는것.

普門寺에 얽힌 얘기는 이 밖에도 많은데 지난72년 7월에는 普門寺의 70여명의 비구니들과 대학생들을 초청해 비구니들과 대화의 모임을가지자 다른 여대생들이 [illegible] 모임이라는데 의견을일치 [illegible] 화제가 되기도했다. 【차진제기자】

◇1億들인 석굴암 공비만도 1억원이든 普門寺의 석굴암. 주지와 총무등 두스님은 이 석굴암 건립비에 쪼들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공무원 收賂수사

七票등 5業體도

低質炭사건

연탄업자들의 저질연탄 쪽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三票연탄등 3개업체대표를 구속한데이어 9일 七票연탄등 나머지 5개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자들이 열량검사등을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뇌물을주어왔을것으로보고 이에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검찰은 8일밤 전한국연탄공업협회(지난해9월 석탄협회와합병)회장 金모씨(50)를소환, 업자들과 관계공무원과의 관련여부를 조사했고 이어 공무원들도 소환할예정이다.

생명의 말씀
CITY-TV : 체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체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움직이지 못하는 盲人 서비스센터

自願봉사자 몰렸지만 資金없어

외국에 救援요청도 감감 애태워

서울시내 번화가에있는 신호등 옆에서면 푸른불이켜지는 순간 경쾌한 신호음이 흘러나온다. 맹인들을위해 마련한 청각신호기다. 웬만한 선진국 수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복지형 시설이 아닐수없다. 그러나 그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느낌이든다. 맹인들의길안내와 장보기등 일상생활을 돕자는 자선단체가 「맹인생활서비스센터」를 설립했지만 기금 1천만원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속사정이기도 한것이다. 이 자선단체는 지금 외국에서 그기금을 대줄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올해는 세계장애자의 해. 우리사회의 힘만으로도 이센터를 활발히 굴러가게 할수는 없는 것일까.

임대료등 2千萬원없어 「지팡이」노릇 좌절

「맹인생활서비스센터」는 금년봄 맹인과 일반직장인들로 구성된 맹인자원봉사자모임인 한벗회(회장 白貞昌·35)에 의해 조직됐다. 당시 일본의 이같은 제도를 돌아보고온 한국맹인교육연구회 이사장 陸炳一씨(56)의 귀띔에 따라서 였다. 서비스센터는 쉽게말해 일반민간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연락처와 1주일중 틈이나는 하루4~5시간씩을 등록받아 도움이 필요한 맹인들과 연결시켜 주는것. 길안내, 장보기, 관공서서류떼어주기 안내등 맹인들의 지팡이, 손발노릇을 해주는 조력자조직이다.

센터는 맹인들이 평소생활해나가는데 필요한 갖가지생활정보를, 예컨대 맹인용지팡이나 자칫깨지기쉬운 안경등은 어느곳에가면 얼마나 싸게살수있다든지, 점자(點字)도서를 사거나 빌어볼수있는 길, 일반용 114번과 비슷한 맹인전화번호부의 비치, 복지시설 소개및 안내등 맹인혼자서는 해결하기어려운 여러가지 서비스를 해주자는 것이다.

또 맹인들을위해 일반사회의 생명의전화와 비슷한구실을할 맹인전용상담전화도 운영할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이에동조하는 야간대학생이나 가정주부등 시간에여유가 있는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선뜻 호응하고 나섰다.

그러나 뜻만 의로왔지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무실의 전세임대료와 2~3대의 전화가설등에 필요한 인시부자재 1천여만원과 상근유보수직원의 인건비등 연간운영비 1천여만원을 확보할 방법이 막연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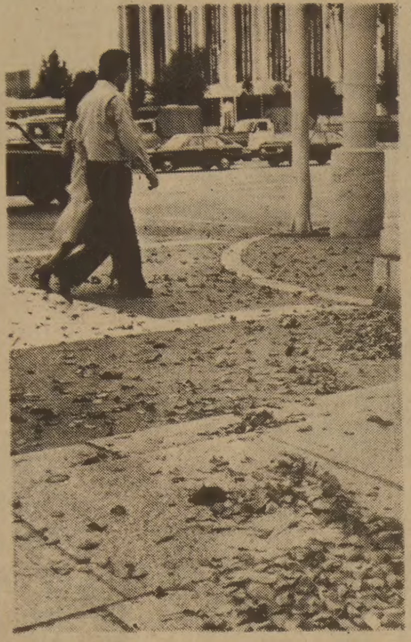
1천만원은 고사하고 지난5월 일반선인 맹인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맹인체육대회개최계획조차 도시락, 경품마련등에 필요한 불과 1백50만원을 대줄 독지가가없어 결국 포기하고 말 정도였다.

고심끝에 한벗회는 전국맹인생활서비스센터만은 꼭 성사시켜야 한다고 결론짓고 지난9월 국제사회복지재단(ICCO) 한국위원회 추천을받아 이재단 네덜란드본부에 자금지원(장기저리복지융자)을 요청해놓고 있으나 소식이없다.

한벗회측계획은 우선 1차로 서울會賢洞, 陽洞 일대의 맹인집단주거지역을 주대상으로 서비스활동을펴다음 점차11만~12만명으로추산되는 전국의 맹인들을상대로 확대해나갈 계획.

지난해12월 보사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한 장애자실태조사에의하면 자체맹인의 65.6%가 무직이고 직업을갖고 있어도 안마, 침술, 복술(卜術)등 5~6개직종에 한정돼있어 맹인들의직종이 1천6백종이 일본이나 4천여종으로 다양화돼있는 미국등과 비하면 직업개발면에서만보더라도 우리사회가 맹인들을 얼마나 외면, 소외시키고 있는지 알수있다.

장애자의해인 올해 정부가 도심지의 맹인용교통신호기, 한국시각장애자협회 회관(서울千戶洞)의 신축기증, 1백명 수용 맹인양로원(서울上溪洞)신축등으로 적지 않은 관심을보이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전체 맹인들을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아쉽다고 관계자들은 입을모으고있다.


◇코트입은 女人도

때아니게 스산한 초겨울날씨에 강풍마저불어 낙엽이 가로에 휘날렸다. 공휴일인 9일 서울거리에는 코트차림의 행인들도 눈에띄었다.

눈

雪嶽·智異山에 첫눈

中部내륙零下 초겨울날씨 며칠계속

때아니게 쌀쌀한 초겨울날씨가 주말(11일)까지 계속될것같다.

한로(寒露)인 8일저녁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강하하기시작, 한글날인9일 서울을비롯한 중부지방의 최저기온은 8도로 예년보다 7도가 낮았고 낮최고기온역시 15도로 예년에비해6도가 낮았다.

大關嶺등 내륙산간지방은 최저기온이 영하5도이하로 떨어졌고 雪嶽山은 영하4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올들어 첫눈이 (적설량1cm) 내렸다.

특히 해발1천7백8m의 大靑峰부근에는 초속20m의 강한 북서풍이 불고있어 등반중이던60여명의 등산객들은 해발1천2백m지점에 있는 喜雲閣으로 긴급대피 했다.

또 智異山에서도 9일새벽 2시께부터 6시까지 4시간동안 천왕봉 (해발1,915m)을 중심으로한 해발1천4백m이상의 고산지대에 눈이내려 5cm의 적설량을기록했다.

한편 예년보다 20일 일찍 눈이 내려 단풍과 함께 절경을 이룬 智異山 天王峰·신선대·세석평원등을 구경하기 위해 晋州산악회를 비롯, 직장산악회원 4백여명이 공휴일인 이날 智異山을 찾는등 등산객의 행렬이 줄을이었다.

중앙관상대는 전국의 기온이 계속떨어져 10일과 11일 서울 春川 水原 淸州등 중부지방의 최저기온은4~7도, 최고기온은 14~15도로 예년보다 5~7도가량 내려간초겨울의 날씨가 계속되다 11일부터 차츰풀리기시작, 14일께부터는 정상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다.

한글날 5백35돌 기념식

南총리 "자주정신계승을" 기념사

한글날인 9일 한글반포5백35돌 기념식이 전국 각시도에서 열려 世宗大王의 한글창제위업을 기렸다.

서울에서는 이날 상오10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南悳祐국무총리를 비롯,3부요인과 학·예술원회원, 교육계대표, 한글학회회원, 학생등 5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南총리는 이날 기념사를통해 『한글의 創制理念속에는 온국민의 편리를 피한 民主·民本의식과 외래문화의 속박에서 겨레문화의자주성을 선언했던 자주의식이 뚜렷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한글에 담긴 참 가치를 깨달아 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접대부殺害犯검거

【釜山=聯】 속보=釜山市東區草梁2洞 행운여관 접대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釜山동부경찰서는 사건발생7시간만에 범인 崔榮善씨(24·경기도 安養市坪村洞89)를 검거,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ONE AT A TIME, PLEASE.

필자가 누욕에 있을때의일이다. LA로 가는 친구를 전송하러 J.F.K (John F.Kennedy의 약자) 공항에 간적이 있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하여 gate로 급히 들어가는 도중 갑자기 미국인 경비원이 『원앳어 타임 프리즈』라고하였다. 알고보니 한사람씩 통과하게 되어있는 detector (무기 휴대 여부를 가리는 장치)에서 친구와 내가 바쁜나머지 한꺼번에 들어서자 『한사람씩 입장하세요』란 말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씩~을하다」의 뜻으로 One at a time.이란 표현을 일상 영어에서 흔히 들을수 있다. 버스를 서로 먼저 타려는 사람들에게 운전사가 「한분씩타십시오」하는 때나 「그 알약은 한꺼번에 다 먹지 말고 한알씩 복용하시오」혹은 여러건의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지말고 「한건씩 처리하지요」 이러한 경우의 적절한 표현이 바로 One at a time.이다.

A : Do you have anything for a cold?
B : Do you have a fever?
A : No, I don't. I have a cough and my nose is running.
B : Why don't you try Contac capsules?
A : Okay. How many should I take?
B : Only one at a time-every twelve hours.
A : 감기에 좋은 약이 있나요?
B : 열이 있으세요?
A : 열은 없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흐릅니다.
B : 콘택을 한번 잡숴 보시지요.
A : 그러지요. 몇알씩이나 먹어야 되나요?
B : 12시간마다 한알씩만 복용하십시오.

※have a cough : 기침을하다。
nose is running : 콧물이 나다。
코를풀다는 blow nose라고표현 함.

바자회에 초청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의 목적으로 바자회를 열게 되었읍니다.

교민 여러분 부디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려하는 저희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0월17일(토) 아침10시~저녁7시
장 소 : 오순절장로교회 친교실
754 Indian Rd.(Dundas W. & Humberside)
전 화 : 762-1495
취급품목 : 해 삼 물(미역, 멸치)
의 류(한국에서 다량구입했음, 밍크담요)
식 기 류(스텐다라이(大), 고무다라이(大), 냉면그릇, 스텐국그릇, 스텐김치통(大))
밑반찬류(고추장, 된장, 오징어채, 칼치채, 기타)
음 식 류(육계장, 떡만두, 짜장면, 군만두, 춘찬피, 빈대떡, 오뎅)
가격은 모두 $2.50 균일
떡 (시루떡, 인절미, 약밥, 송편, 모찌떡)
※행운권도 있음.

주최 : 오순절장로교회
여선교회 일동

새 온타리오 내
최소임금률

— 1981년10월1일부터 새 최소임금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일반 임금 시간당	$3.50
— 훈련받는이 시간당	$3.40
— 학생 임금 시간당	$2.65
— 주류허가업체 시간당	$3.00
— 건설공사 시간당	$3.75

더 이상의 지식을 알고자하면 다음 시에 있는 온타리오 노동청, 고용과로 부터 지식을 얻을 수 있읍니다.

TORONTO
400 University Avenue
M7A 1V2
Tel: (416) 965-5251

KINGSTON
1055 Princess Street
K7L 1H3
Tel: (613) 547-3414

OTTAWA
2197 Riverside Drive
K1H 7X3
Tel (613) 523-7530

SUDBURY
199 Larch Street
P3E 5P9
Tel: (705) 675-4455

WINDSOR
500 Ouellette Avenue
N9A 1B3
Tel: (519) 256-8278

HAMILTON
1 West Avenue South
L8N 2R9
Tel: (416) 527-2951

KITCHENER
824 King Street West
N2G 1G1
Tel: (519) 744-8101

ST. CATHARINES
205 King Street
L2R 3J5
Tel: (416) 682-7261

THUNDER BAY
435 James Street South
P7E 6E3
Tel: (807) 475-1691

KENORA
808 Robertson Street
P9N 1X9
Tel: (807) 468-3128

LONDON
205 Oxford Street East
N6A 5G6
Tel: (519) 439-3231

SAULT STE. MARIE
390 Bay Street
P6A 1X2
Tel: (705) 949-3331

TIMMINS
273 Third Avenue
P4N 1E2
Tel: (705) 267-6231

당신 전화번호책에서 무료장거리 전화를 위해 정부번호를 찾으십시오.

Ministry of Labour
Ontario
Employment Standards Branch
Robert G. Elgie, MD, Minister
William Davis, Premier

전국體典/오늘 화려한 開幕

13개市·道 7개 海外同胞팀 참가
33개競技場서 熱戰 6일

88년 서울 올림픽의 의지를 담은 제62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10일) 상오10시 서울운동장 메인스타디움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6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싱싱한 새기상, 펼치는 새역사」의 힘찬 슬로건을 내건 이번 체전에는 금년 직할시로 승격된 大邱·仁川을 포함한 전국 13개시도와 7개 해외동포선수단등 총 1만5천4백59명의 임원·선수들이 참가, 72년 전국체전이 분리된 이후 최대규모를 보이고 있다.

9시10분부터 민속놀이등 式前공개行事

大邱득점판 선뵈

55회대회이후 7년만에 서울서 열리는 이번체전은 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 기존 경기시설(서울 종합운동장 잠실체육관및 수영장)·태릉종합사격장등을 예비점검하는 의미도 갖고 있으며 대회 로고·S마크를 서울운동장에 비롯 전국적으로 대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釜山, 先頭로 入場

경기는 연6일간 33개경기장서 고등부·대학부·일반부로 구분되어 총33개종목에걸쳐 펼쳐진다.

개회식은 육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연주속에 개식통고로 시작, 부산─경남─경북─대구─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경기─제주─해외동포─이북5도─인천─서울의 순서로 입장하고 李奎浩 문교부장관의 개회선언과 朴英秀서울시장의 환영사에 이어서 대회기가 게양되고 성화가 점화되면서 절정에 이르게된다.

合同매스게임 준비

개회식에 앞서 9시10분부터 50여분간 체조 시범을 비롯하여 민속놀이(답교놀이)·현대무용(새 생활의 율동)등 식전공개행사가 펼쳐지며, 개회식공개행사로 밴드퍼레이드, 남·녀고 매스게임, 한농매스게임이 준비되어있다.

한편 체전개막을 하루앞둔 9일하오3시부터 5시까지 참가선수단이 모두 착가한가운데 서울운동장서 모의개회식을 개최, 대회개최의 모든 준비를 끝냈으며 밤7시부터는 장충체육관서 화려한 전야제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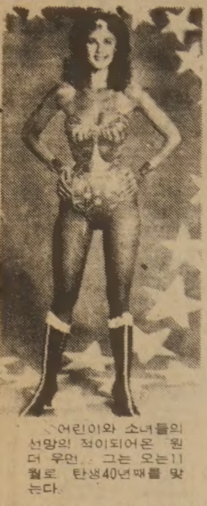
◇체전심벌마크
태극의 기본색상(적색, 청색)을 바탕으로하여 서울특별시의 마크를 상징했다.
또한 중심원으로부터 뻗치는 힘찬동감과 강렬한 직선으로 단합된 국민의힘과 기술을 표현했으며 8등분으로 나누었은 우리나라의 8도강산을 의미했고 가운데 원과 외곽선은 62회 체전의 62를 표시했다. 산업디자인 포장 센터의 의匠.

白仁天 일시歸國

日本프로야구 긴데쓰·버펄로즈에서 활약중인 白仁天이 8일 부친 白慶道씨의 부음을 듣고 9일하오 일시 귀국했다. 白은 장례가 끝나는대로 팀에 돌아갈 예정이다.

◇제62회 전국체전을 밝힐 성화가 江華郡摩尼山 塹星壇에서 채화돼 첫주자 申圭煥군에의해 봉송길에 올랐다. 【江華=徐鍾道기자】

TV시리즈「원더우먼」40회 生日맞아
主演 미스 USA 린다·카터양 상승



◇어린이와 소녀들의 선망의 적이되어온 원더 우먼。그는 오는11월로 탄생40년때를 맞는다.

中共서 첫 프로권투
내달 英聯邦플라이級 타이틀戰

【코펜하겐8日聯合】프로복싱英연방플라이급챔피언 스티브·무초키와 도전자인 가나의 키드·수마일라간의 타이틀전이 오는 11월 中共에서 벌어진다고 덴마크 프로모터인 로렌스·팔레씨가 8일 발표했다.

中共에서 프로복싱 타이틀전이 거행되는것은 처음인데 팔레씨는 11월28일 北京에서 거행될 이대전 계약이 中共당국과 이미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體典聖火 봉송길에
4백56명走者 90.5km릴레이

【江華】제62회 전국 체전을 밝혀줄 聖火가 9일 상오 10시 강화군 摩尼山 참성단에서 채화되었다.

채화식은 李澔錫 강화군체육회 전무이사의 개식선언에 이어 소복으로 단장한 江華女高 7선녀가 등단, 아름다운 율무가 펼쳐진 가운데 韓世烈 江華군수의 집전으로 진행되었다.

채화된 성화는 최초주자 辛圭煥군(江華綜高3년)에게 전달, 90.5km를 14개교 4백56명의 주자에 의해 봉송길에 올랐다.

세계청소년 蹴球 83年大會 北美서

한국, 브라질에 完敗
세계청소년蹴球 豫選서 탈락

【멜번8日=千一平특파원】한국청소년대표팀은 8일 하오 이곳 올림픽 파크구장서 벌어진 제3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예선B조 최종 3차전에서 강호 브라질에 3-0으로 패해 1승2패를 기록, 예선B조에서 탈락했다.

이날 한국은 전반서 실점하지 않았으나 후반 2분30초에 로베르토에 왼발슛을 맞...

고 실점, 1-0으로 리드당했으며 16분에 세레노에게 또 한골, 34분 FB金鍾善의 자살골로 실점하여 3-0으로 완패했다. 한국은 슈팅수에서 14-14로 열세였다.

고있는 브라질은 기량이월등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B조
브라질 3(0-0 3-0)0 한국
(2승1무)(1승2패)

▲朴鍾煥 한국팀 코치의 말 ＝브라질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월등하게 뛰어나 어쩔수 없었다. 후반전서 우리선수들은 제대로 뛰지 못했으며 이때문에 더욱 큰스코어차로...

스핑크스 첫防禦戰 11월7일 존슨맞아

【뉴욕8日AP=聯合】세계복싱협회(WBA)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마이클·스핑크스가 오는11월7일 애틀랜틱시티에서 1차방어전을 갖는다.

日마라톤강자 세꼬 88서울올림픽 출전

【東京支社】오는 30, 31일 서울서 열리는 한국 육상선수권대회에 초청을받고 1만m에 출전하는 日本마라톤의 최강자 세꼬·도시히꼬(瀨古利彦)가 88년 서울 올림픽에도 출전하겠다고 밝혔다.

세꼬는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출전, 이디오피아의 맨발의 마라톤왕자 아베베와 같이 올림픽2연패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야망을 보였다.

1년동안 1만km를 달리는 세꼬는 앞으로 서울올림픽까지 7만km를 달릴 준비를 갖추고있는데 나까무라(中村)코치는 능력면에서 아베베를 능가한다고 세꼬를 추켜세우며 서울올림픽을 충분히 노릴수있다고 장담했다.

한국일보
533-2361

3個蹴球大會 곧발족
女性·室內·12~14세少年등
FIFA會長 밝혀

【방콕8日AP=聯合】국제축구연맹(FIFA)은 세계여성축구선수권대회와 실내축구선수권대회및 12~14세 연령층이 참가하는 세계소년선수권대회등 3개 선수권대회를 곧 발족시킬 것이라고 FIFA회장 조앙·아벨란제씨가 8일 밝혔다.

東南亞국가를 순방하기위해 파푸아 뉴기니를 방문한후 7일밤 방콕에 도착한 아벨란제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선수권대회는 3개지역의 예선을거쳐 본선에는 6개팀이 진출하게되며, 소년및 실내선수권대회는 내년부터 지역예선을 실시하여 본선진출팀을 다같이 16개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일부국가에 존재하고 있으나 FIFA는 별도의 여성축구협회가 ...

◇체전 경기일정

경기종목	경기구분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경기장
육상	트랙·필드		●	●	●			서울운육상장
	단축마라톤			●				창동(네거리)~의정부
	마라톤				●			
수영	전국체전	●	●	●	●			서울종합운수영장
	소년체전				●	●	●	
축구	고교예·준·결승	●			●	●	●	서울운동장
	대학예·결승	●				●		
	일반결승						●	
	해외동포결승					●		
	이북5도결승					●		
	고교예선		●	●				동국대구장
	일반예·준결승	●		●	●	●		
	대학예·준결승		●	●	●			서울체고구장
	해외동포예선		●	●	●			건국대구장
	이북5도예선			●	●			
야구	일반	●	●	●	●	●	●	서울운야구장
	고교			●	●	●	●	
		●	●	●				신일고구장
테니스	남자전종별	●	●	●	●	●		장충코트
	여자전종별	●	●	●	●			이화여대코트
연식정구	전종별	●	●	●	●	●		효창테니스장
농구	남고·남대부	●	●	●	●	●	●	단국대체육관
	여자·남자일반	●	●	●	●	●	●	장충체육관
배구	남고·남대부	●	●	●	●	●	●	서강대체육관
	여고부	●	●	●	●	●	●	현대체육관
	남·여일반부	●	●	●	●	●	●	종합운실내체
탁구	전종별	●	●	●	●	●	●	명지대체
핸드볼	전종별	●	●	●	●	●	●	서울시한생체
럭비	전종별예선		●	●	●	●		서울럭비경기
	각종별결승						●	서울운동장
사이클	전종목		●	●				효창운
	도로경기					●		상봉동과춘소
복싱	고교·일반부	●	●	●	●	●		서울종합실내
레슬링	그레꼬로망		●	●				동국대체
	자유형				●	●		
역도	전체급	●	●	●	●	●		어린이대공원
씨름	전종별		●	●	●			장충공원어린
유도	단체전·전종별		●	●				유도회관
	개인전·전체급				●	●		
검도	전종별		●	●	●			경기고체
궁도	양궁		●	●	●	●		영동고구장
	국궁		●	●				황학정
사격	전종별		●	●	●			태릉종합사격
승마	전종목				●	●		승마공원
체조	전종목		●	●	●	●		영동고체
하키	남고예일반예선	●	●	●	●	●		용산고구장
	남고예일반결승				●	●	●	효창구장
	여고전경기	●		●	●	●	●	
펜싱	개인전	●	●					서울고체
	단체전		●	●	●	●	●	
배드민턴	전종별	●	●	●	●	●		한양대체
태권도	전체급		●	●	●	●		국기원
조정	전종별		●	●	●			한강조정장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⑥⑥

내무부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나에 대한 모함은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나왔다. 나를 모함하여 장관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은 나와 李承晩 대통령과의 밀착된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정치공작에 가장 방해되는 인물로 생각한 것이다.

나에대한 비난과 모함은 국회안의 韓民黨쪽에서도 나왔고, 나에게 감정을 품은 일부 在野 인사들에게서도 나왔다.

金相敦의원은 국회에서 『尹내무가 親日派를 등용해 쓴다』며 날뛰며 나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에게 감정이 있었다. 金相敦은 한때 내집으로 날찾아와 『서울시경찰국장을 시켜달라』고 말했다. 안된다고 하니 『아니 국회의원이 경찰국장을 하겠단 말이오.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시오』라고 면박을 주었더니 그는 잔뜩 골이 난 얼굴로 돌아갔다. 이내 앙심을 품고 욕을하기 시작했다.

金은 또 反民特委에서 날 親日派라며 조사를 해야된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녔다. 그 말을 들었을땐 분노보다는 웃음이 나왔다. 日帝때 洞會에서 副總代로 일하며 親日한 장본인이 누굴보고 親日派라니…。金과함께 反民特委에 관계하던 申九

5개월만의 下車

相이란 인물도 나를 親日派로 몰았다。公州출신인 그는 날보고 忠南도지사를 시켜달라고 하다 면전에서 거절당한 인물이다.

제헌의원인 李錫柱와 李源弘이 또 나를 몰아내야 된다며 비난하고 다녔다. 李錫柱는 李源弘과 함께 그전에 날 찾아와서 中部署에 있는 자기의 조카를 내보내달라고 부탁했었다. 그의 조카는 사사로운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一言之下에 거절했다.

李大統領과 밀착關係 떼려는 策略
中傷모략 못견뎌 內務長官職 내놔

『건국초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할 마당에 그게 될말이오. 잘잘못은 검찰에 넘어가면 가려질게 아니오』라며 말했더니 李錫柱는 『어디, 내무장관 얼마나 해먹나 두고보자』며 이를 갈고 나갔다.

유감스러웠던 것은 滄浪 張澤相의 태도였다. 외무장관인 그는 처음부터 내무장관을 하고 싶어했다. 그는 錢鎭漢·柳珍山등과 함께 나를 헐뜯었다. 그렇지않아도 滄浪을 당초 內務로 천거했었던 나는 그를위해 늘 내나름대로 걱정을 했었는데 다른 인물들과 같이 날 모함할 줄은 몰랐다.

『內務와 外務가 바뀌었다』 『尹내무가 친일파를 쓰고있다』는 소리와 함께 중상, 모략의 소리가 자꾸만 나왔다.

巢人타이프의 錢鎭漢사회부장관은 성격이 좀 단순하면서도 소탈한 데가 있어 배후에서 날 욕보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는 장난에 말려들었던 것이다.

錢은 그 일이 있기전 그의 社稷洞관사에 과거 함께일하다 수배중인 柳珍山을 숨겨주었었다. 당시 漢江부자로 소문났던 林宗相이 家財와 관련된 문제로 珍山을 걸어 수도경찰청에 고소를 제기해 鍾路署에서 그를 잡으려고 한것이다.

나는 그런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경찰에서 추적끝에 珍山집으로 가니 그는 사회부장관집 담안쪽 장작더미속에 숨어있었다. 경찰은 나지막한 담너머로 珍山을 보고 『나와서 같이 갑시다』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내가시켜 가택수색을 했다는 모함으로 발전했다.

◇初代내무장관에 취임한 筆者는 謀陷과 中傷에시달리다 5개월만에 辭任했다. 사진은 48년8월 李範奭국무총리(中央)와함께 무쵸 美大使⑤로부터 行政權 引受書를 접수署名하고있는 筆者.

錢은 李대통령에게 달려가 『尹내무가 내집을 조사하고 애국공로자인 珍山을 잡으려한다』고 말했다. 뒤집어써도 보통 뒤집어쓴게 아니었다.

제헌의원이기도한 錢은 국회에서 또 尹내무가 권력을 남용, 국회의원의 가택을 수색하고 애국인사를 구속하려했다고 말했다. 나에게 불만을 품은 인물들이 이를 好機로 생각했다.

12월22일 앞서말한 李錫柱의원의 제의로 국회에서 『국회의원 가정檢査』를 이유로 내무장관 自退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당시국회법에도 없는不法행위였다.

李대통령은 『법에도없는 장관自退건의를 했다』며 노발대발했다.

내가 『사표를 내겠다』고하니 李대통령은 『국회에서 불법결의를 했는데 무슨 사표냐』며 만류했다.

그런뒤 錢사회부장관이 사표를냈다. 이일과 때를 같이해 『張澤相외무와 尹내무가 싸운다』는 말이 나왔다. 李대통령은 이게 무슨 창피스런 얘기냐며 화를 냈다.

張외무가 사표를 냈다. 나도 괴롭고 귀찮아 사표를 냈다.

그뒤 李대통령은 날 불러 『오히려 잘됐다. 국회에 가서 일을 좀하라』며 위로했다.

난 5개월만에 내무장관직을 물러났다. 12월25일, 후임내무에 申性模, 사회장관에 李允榮씨가 임명되고 한달뒤 외무에 林炳稷씨가 起用됐다.

이후 國政엔 짙은 어둠이 깔리고 모함과 시기속에 李대통령의 주변은 간교한인물들의 농간으로 점차 汚染돼가기 시작했다.

날 비난했던 錢鎭漢은 궁핍하게 지내던 60년대초 날찾아와 『내가 속았어』라며 自嘆을 했다.

블론디 딘 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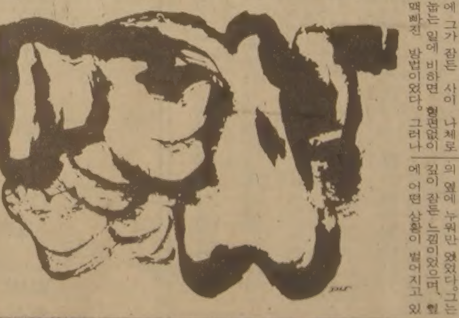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주간女性

돌개바람 불다 ㉔
趙善作 作 / 金光培 畵
…生 <223>

잠들기 전에 그가 안에서 방문을 잠글 경우에 대해 나는 생각해 두었었다. 해운대에서처럼 종업원이 가진 또 다른 열쇠를 이용할 수는 없었다. 내가 일행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제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열쇠전문가를 불러들일수도, 모조품을 만들어 둘 여유도 없었다.

나는 다만 그가 안에서 방문을 잠그는 따위의 용의주도한 행위를 범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만약 그가 문을 잠근다면 그의 방문에 노크소리를, 그가 깨어서 잠긴 문을 열어주기까지 끈질기게 노크소리를 내리라고 생각했을뿐이었다. 그것은 물론 그의 옆에 그가 잠든 사이 나체로 눕는 일에 비하면 형편없이 맥빠진 방법이었다. 그러나



나는 불과 어제, 아니 자정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저께의 일이 되지만, 바로 등 뒤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과거에 그에게서 쫓겨나 일행으로부터 멀리 분리되었다고 그에게 인식된 상태였다. 게다가 그는 혹시 내가 되돌아올는지도 모른다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운대에서 온양까지 도망쳐 온 것이다. 잠자고 방문에 노크 소리만 내다가 문을 연 그에게 불쑥 얼굴, 그것도 거즈와 밴디즈로 오른쪽 뺨의 반쯤을 가린 상처 받은 내 얼굴을 보여주었을때 과연 그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을는지. 그쯤으로 그에게, 그의 옆에 나체로 눕는일에 버금가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운수 좋게도 그는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유감독이 떠난 뒤의 일이었고, 그가 방의 전등을 끈지도 삼십분쯤 지나서였다. 이제는 그가 잠들었다고 판단하고 나는 내 방을 나왔고, 그의 방문 앞에 선 것이다.

나는 그의 전후를 헷갈려서 그의 방문에 우선 노크소리부터 냈으며, 그런다음 마지못한 느낌으로 방문의 손잡이를 비틀어본 것이다. 그런데 손잡이가 무저항으로 돌려지는것이 아닌가. 뒤에 알아낸 일이지만, 그는 밖에 나간 유감독이 방문을 두드리며 돌아올 일을 염려해서 방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나는 마치 그가 나의 침입을 예상하고 환영하기위해 방문을 잠그지 않은 것처럼 믿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아무튼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비끄럽게 그의 방으로 들어갔고, 정흥의 방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때처럼 망설이지는 않고 나체가 되어 그의 침구 속으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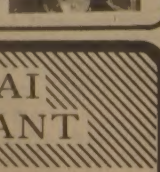
얼마동안 나는 잠자코 그의 옆에 누워만 있었다. 그는 깊이 잠든 느낌이었으며, 옆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우여곡절끝에 그의 옆에 누웠다는 성취감만으로도 안도와 기쁨에 벅차올랐으며, 어둠속에서 가만히 희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내 성취감은 오래 끌지 못했다. 곧 날이 밝혀질것이며, 유장훈감독이 언제 문앞에 나타날는지도 모른다는 점에 생각이 미쳤던 것이다. 그가 나타나 방문을 열고 불을 켜고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도록 버려둘수는 없었으며, 그렇다면 맞은편 방의 윤나미 모녀가 깨어나 이쪽 방의 수선스러움을 보는것도 시간문제라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빨리 내일을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나는 초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이런 초조감이 그를 깨우게 한것이다.

나는 먼저 엄지와 검지 두개의 손가락으로 가볍게 그의 코를 쥐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가 호흡의 곤란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 202A,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 ●우황 ●사향
●웅담 ●녹용 ●점주사 ●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所得稅 人的공제 引上안해"

國會本會議 質問·답변 秋穀價30%引上어려워

投資줄고 景氣回復안됐다
重化學투자 全面조정하라
議員질문

南惠祐국무총리는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이싯점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마련한 것이기때문에 재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南총리는 이날 하오 국회本會議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지난8월말현재 外債의 총액은 3백3억달러』라고 밝히고 『그러나 元利金償還부담률은 지난70년도의 21%線에서 81년도에 13%線으로 떨어지고 있기때문에 결코 비관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賦存자원이 없고 인구가많은 우리의 특수상황때문에 外資도입은 불가피하다면서 『外資의 高金利등의 문제등이 있기는 하나 댓가와 이익의 收支를따져 5차경제개발기간중 4백65억달러의 外資조달을 계속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南총리는 또 경제전망에언급, 『總量的인 지표는 분명히 회복, 好轉되고 있으며 시간이지나면 건설업, 서비스분야의 호전과함께 고용사정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5차경제개발은 전망이 밝다고 전제한뒤 『안정基調의 바탕위에서 점진적인경기회복을위해 노력을 하겠으나 종속하게서두름으로써 인플레를 촉발하는 정책은 결코 저지르지 않을것』이라고 덧붙였다.

申秉鉉경제기획원장관은 『秋穀收買價인상에대해 『아직 결정은 하지않았으나 30%인상은 어렵다』고 밝히고 『농산물수입은 우리국토의 협소성과 기후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李承潤재무장관은 『납세자 변화대원칙상 所得稅의 人的공제수준 인상은 어렵다』고 말하고 『장기적으로 보아 直接稅가 間接稅보다 높은 쪽으로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附價稅制는 폐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中小기업 지원을위해 信用貸出을 확대하고 일반은행의 의무대출비율도 上向조정하겠다』고 밝혔다.

高建농수산장관은 『농산물 가격豫示制는 앞으로 5개년계획기간동안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에는 쌀을 신규로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徐錫俊상공장관은 『최신자료에 의하면 10월6일까지 수출액은 1백57억1천3백만달러로 작년同期에비해 31억달러가 증가되었다』고 밝히고 『금년목표 2백5억달러를 넘어 2백10억달러가 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本會議에서는 이날 金永生(국민) 許京萬(民韓) 金鍾基(民正) 盧泰克의원(議同)등이 나서 경제문제에 대한 첫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本會議를 休會한뒤 12일 本會議를 속개하여 경제문제에대한 질문을 계속한다.

外米과잉도입 解明을

金永生의원(국민)은 外債가 3백40억달러에 달해 年間利子만도 35억달러에 달하며 총자본경상 이익률이 80년에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는등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지적, 『제5차계획이 끝나는86년에 국제收支赤字는 54억달러에서 36억달러로 줄고 外換보유고는 70억달러에서 1백10억달러로 늘어난다는 낙관론을 펴고있는 근거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그는 또 ▲현실에 맞지않는 중화학부문의 과감한정리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지원방안 ▲소득세의 人的공제 액재조정 ▲農産物價格豫示制 실시등에 관해질문했다.

許京萬의원(民韓)은 『마이너스성장을한 작년보다 시설투자가 줄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가 회복된다고 보느냐』고 추궁하고 ▲5차 5개년계획의 전면 再調整 ▲經常收支赤字의 抑制방안과 아울러 ▲내년 예산이 22%팽창했으나 농수산비가 금년보다 7·1%감소한 이유 ▲금년도 外米도입증지용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확대 방안등에 관해 질의했다.

金鍾基의원(民正)은 ▲내년도物價억제선 12% 유지가능여부 ▲大企業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盧泰克의원(議同)은 『豊作과 外米과잉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米穀物量과잉波動에 대한 對策은 무엇이냐』고 묻고 ▲外米 과잉도입의 경위와 처리대책 ▲秋穀收買價의 引上幅 ▲農産物가격정책 ▲農協 畜協 水協의 민주운영 ▲農村의료보험실시에 대해 추궁했다.

教權침해事犯 拘束수사로 嚴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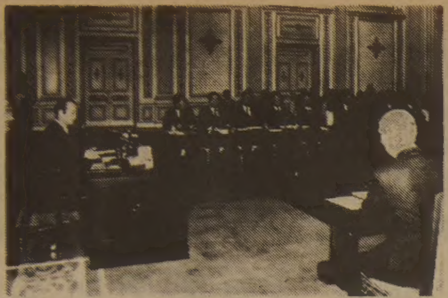
許검찰총장 지시 教權의 정당한行使 보호

대검은 8일 최근들어 國邑山동지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훈육과 관련해 폭언과 협박을 당하고 금품마저갈취당한다는등 교권침해사례가 빈발, 심각한사회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중시, 교사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등 부당한 교권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함으로써 교권의 정당한행사를 보호해 주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許亨九검찰총장은 이날 『교사에 대한 사건의 수사및 진정내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고려, 교육자의 권위와 권위가 충분히 존중되도록 수사에 신중을기할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許총장은 또 각 지검에 편성된 「청소년범죄대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해서 현재 지검부장검사 청소년담당검사 시도교위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 교권옹호단체 대표등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 학생선도및 교권옹호에따른 문제를 합제협의하도록 시달했다.

또 아직 협의회가구성되지않은 지청단위에도 지청장 시군교육장 시장 군수등을 상임위원으로, 관내중고등학교교장을 비상임위원으로한 협의회를 구성토록했다.



"越冬對策 만전을"

全대통령 政府行事간소히

全斗煥 대통령은 8일 상오 청와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각종행사는 예산을절감해 간소하게하도록 하라』고 內閣에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각부처별로 越冬준비계획을 점검해 국민들의 冬季생활에 지장이없도록 하라』고 아울러지시하고 『각부처는 부처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人事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공무원의 無事安逸주의는 부정부패만큼이나 나쁜것』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직책을 충실히 이행할수있는 방향에서 일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국무회의는 관계부처로부터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및 자연보호운동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景氣침체·保護무역 국제情勢 不利 開途國協調해야 經濟발전"

全대통령, 韓·아세안 경제인에

全斗煥 대통령은 8일 『80년대의 국제정세는 심상치않은 不確實性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 세계적인景氣침체가 장기화되고 선진국들이 保護장벽을 강화하는등 국제경제환경은 개발도상국들한테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개방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지속해 나가는길은 상호 긴밀한 협력태세의 강화뿐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 영빈관에서 韓·아세안 경제계 지도자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을위해 리셉션을 베푼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협력관계의 강화야말로 세계경제환경을 개선하고 장차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이끌어 나가야할 太平洋국가들의 하나의 시대적 요청이기도 한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32개事業에 참여

泰의 가스·말聯의 鑛山개발등

아세안 實業人회의

韓國과 아세안5개국 경제계지도자들은 한국기업이 타이 以西지역 연안가스개발, 인도네시아의 4개항만공장건설, 말레이지아석탄鑛 개발등 자원개발및 가공프로젝트와 각국의 도로 항만 플랜트등 아세안5개국의 32개 경제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합의했다.

韓·아세안 실업인들은 이의 추진을위해 경제협력상설 사무국을 韓·아세안 각국에 설치키로 했다.

8일 全經聯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韓·아세안 경제지도자회의에 참석한 3백여명의 기업인들은 7개항의 사업추진합의각서에 서명, 이같이 합의하고 韓·아세안경제인 협의회내에 건설 자원 交易 기술등 4개분과위원회를 설치할것에도 합의했다.

申秉鉉부총리는 이날 개회식치사를통해 정부는 앞으로 민간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적극지원, 보다많은 기업들이 아세안에 진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이어 열린 각분과위원회에서는 아세안 5개국의 경제개발계획추진에따른 건설 플랜트 자원개발등 각종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키로 했는데 자원개발부문에서는 수마트라 남부 2개석탄광개발사업, 타이의 안티몬 金鑛개발, 필리핀의 크롬鑛개발등을 공동추진키로했다.

건설및 플랜트分科委는 인도네시아中部자바상수도건설, 말레이지아 산단칸공항건설, 泰國 가스처리공장건설등 아세안5개국의 항만도로및 플랜트건설등에 한국기업이 적극참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사다트 暗殺에 리비아, 介入說부인

【파리7日AP=聯合】 가다피 리비아국가원수는 7일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암살사건에 대한 리비아 개입설을극구부인했다.

가다피는 이날 관영JANA통신을 통해 이집트국민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사다트 암살은 외부음모에 의한것이 아니라 한 이집트 국민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했다.

埃 공식발표

【카이로7日UPI=聯合】 이집트정부는 7일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암살사건의 진상에관한 첫공식성명을 발표, 이사건이 여하한 정치적집단이나 외국과 전혀 무관한 4명의 이집트군인들에의해 저질러졌으며 이군인들중 한사람인 회교광신자가 사다트 대통령암살단을 조직, 이끌었다고 밝혔다.

對韓經協 妥結촉구

【東京8日=聯合】 한일의원연맹의 일본측(회장 야스이·겐의원)은 8일하오 국회에서 긴급임시총회를 열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대한경협문제를 조속히 타결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社告

제27회 京金大駅伝競走

◇大驛傳競走大會要綱

▲大會日字=11월 9~14일 (6일간493·3㎞)

◇區 間

▲第1區間 (9일) 釜山—密陽 (87·6㎞)

▲第2區間 (10일) 密陽—大邱 (70·6㎞)

▲第3區間 (11일) 大邱—金泉 (64·9㎞)

▲第4區間 (12일) 金泉—大田 (93·9㎞)

▲第5區間 (13일) 大田—天安 (81·8㎞)

▲第6區間 (14일) 天安—서울 (94·5㎞)

▲始發地點=釜山市廳앞

▲終着地點=서울국회의사당앞

▲參加人員=①役員약간명②선수15명이내

▲감독자회의=①1차감독자회의 9일하오6시②2차회의 10월27일 (火) 한국일보社13층회의실

▲選手資格=①각참가팀당해市道연맹에서 추천한관하선수로서 대한육상경기연맹에81년도 등록을 필한자②출전선수의 소속은 본적지 (육련등록) 를 우선적으로하고 등록지를 次位로함 (但본적지와 등록지가 동일한선수는 타시도팀으로 출전할수없음)

▲신청 마 감=10월27일 (火) 하오3시 한국일보社 사업부 또는 대한육상경기연맹

「올림픽韓國」 마라톤中興내건 傳統레이스

11월9일 釜山출발 코스바꿔 493·3㎞

한국일보社와 大韓陸上競技聯盟이 매년 공동주최하는 제27회 釜山-서울間大驛傳競走大會가 오는 11월9일 釜山市廳앞을 출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골인하는 全長493·3㎞ 코스서 벌어집니다.

금년에는 釜山지방의 폭주하는 교통혼잡을 피하기위해 釜山-密陽-大邱로 이어지던 코스를 釜山-慶州-大邱로 이어지는 옛날 코스로 다시 환원했읍니다. 따라서 작년 全長518·7㎞는 25·4㎞가 줄어든 493·3㎞가 되었읍니다.

이 대회는 한국마라톤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침체된 한국육상에 新風을 불어넣어 수많은 마라토너를 배출했읍니다. 금년 대회서도 유망한 중장거리 선수들이 발굴되어 88년 서울 올림픽서 「마라톤 한국」의 영광을 되찾는 계기가 될것을 기약합니다.

한국일보·大韓陸上競技聯 공동주최

사다트路線 유지

埃무바라크 "狙擊犯은 4人組"

【카이로8日AP=聯合】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부통령은 8일 『사다트 대통령암살은 소수의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이며 결코 쿠데타음모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무바라크부통령은 이날밤 자신을 차기대통령 단일후보로 지명한 이집트국회의 결정을 수락한뒤 가진 즉석기자회견에서 사다트 대통령암살에 가담한 범인이 4명이라고 밝히는 한편 리비아에 대해 수단이나 인근 접경국을 침공하지 말도록 강력히 경고했다.

사다트 대통령의 외교·국내정책을 그대로 따를것임을 되풀이 강조하고 이집트전국에 선포된 1년간의 비상사태는 1년이 되기전이라도『필요가 없다고 생각될때』는 해제할 용의가있다고 밝혔다.

社會漫評

생신을…

地平線

『범죄는 미국의 염병이다』레이건 대통령은 지난달28일 뉴올리안즈에 모인 국제警察長협회 총회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범죄로 해서한해2만3천명이 죽는다. 범죄의경제적 손실은 한해 88억달러에이른다. 53%의 시민들은 밤거리를 걷기가 두렵다고 말한다』

▼지난달 상순 미국연방수사국(FBI)은 80년도 범죄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에의하면 미국에서는 매1분마다 1건의 강도사건, 매23분마다 1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重犯의 총발생건수는 1천3백만건으로, 10년전보다 50%가 늘었고, 작년한해의 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의 4배. 반면에 검거율은 겨우 폭력범 44%, 재산범 16%에 머물렀다.

▼이의 대책으로 레이건 대통령은 연방 형사법의 전면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을 빌면, 범죄대책은 『사회사업가의 서류철에서도…정부기구의 예산에서도』 찾을수가 없다. 그는 미국의 사법제도가 까다로운 절차의 수렁에 빠져 기능을 다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소된자의 권리』가 균형을잃고 착한자의 권리가 엷어졌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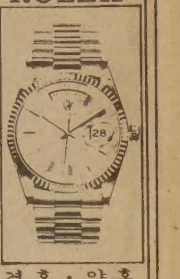
▼그가 염두에둔것은 미국법원의 採證법칙이다. 1914년대 법원 判例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얻어진 증거는 有罪판결의 근거로 삼을수가 없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말할것도없고 영장없이 압수한 物證도 마찬가지다. 이런것을 증거로인정한다면 과잉수사로인권이 침해될염려가있다는 것이다. 이 判例가범죄수사의 큰 짐이 된것은 틀림이 없다.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에서 첫번째로 제시한 방안은 불법으로 입수한 物證도 특정상황 아래서는 증거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작년에 그런 物證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증거로 쓸수 있다고 判例를 약간 후퇴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형사법의 개정안은 재작년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는 유보됐다. 헌법상의 자유권을 앞세우는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法制上의 범죄대책이 완벽하다. 10여일 「任意同行」끝의 자백내용이라도 증거로서 흠이 없다. 미국의法개정안에 담으려는 保釋요건의 강화, 불법무기 소지자의 엄벌, 형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명령등 우리에겐 갖추어져 있지 않은것이 없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에는아직 「염병」이 없다. 미국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뭔가 배울 것이 있을것도 같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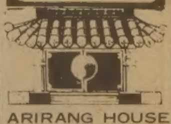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38
은 : 온스당 US 9.3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서 울 식 품
Ⅰ.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Ⅰ.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961-3111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한
사교댄스 강습
지 간 : 10월22일(목)~12월17일
(매주 목요일 저녁)
지 도 교 사 : 김 유 수(현 Board of Education Canadian Dance Class교사)
초급반 : 7 : 30~9 : 00 부르스, 지루박, 월츠, 도롯도
중급반 : 9 : 00~10 : 30 탱고, 차차, 폴카
고급반 : 9 : 00~10 : 30 각 댄스의 고급스탭
장소및 우편신청 : Y. KIM
TRINITY UNITED CHURCH
427 Bloor St. W. Toronto
(블루어×스파다이나)
문 의 처 : TEL : 922-8435
(9~5시)=Jean
366-4728
(저녁4시~9시, 주말)
회 비 : 싱글 $40, 커플 $70
※체계적인 교안과 실습을 통해 철저한 책임지도 봉함.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선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월~토 9 : 30AM~6 : 00PM
FASHION OPTICAL
53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64
영업시간
●월~토 11AM~7PM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 ROYAL RESTAURANT

한국語文정책에 「끝없는 싸움」

한글전용 贊反싸고 다시 加熱

「한글전용」과 「漢字混用」의 상반된 주장이 한글반포 5백35주년 한글날을 맞아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한국어문교육연구회(회장李熙昇)가 지난5월31일자로 「국민학교 한자교육부활과 한자혼용 교과서편찬을 바라는 건의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한것을 계기로 이미몇달째 불이붙어있는 이싸움은 한글학회(회장허웅)가 최근 「국어교육정책에 관한 우리의주장」을 관계당국에 제출, 이에 반격을 가함으로써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국어문교육연구회는(鄭寅承 李丙燾 金斗鍾씨등) 전국72명의 서명을 곁들인건의서에서 한자혼용의 바탕으로 세종대왕의 한글創制의 근본정신을 들었다. 「龍飛御天歌」「月印千江之曲」등이 국한혼용체임을 보더라도 세종대왕의뜻은 한자혼용에 있었다는주장이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뜻을 오해, 한글전용만이 애국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세종대왕의 한문숭상이나 한글창제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공화당정권이 한때 한글전용정책을채택, 국민을 오도했다고 주장한 어문교육연구회는 「국민학교부터 교과서를 국한혼용으로 편찬,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한글전용에관한 법률을 폐지, 한자혼용교육을 실시하는것이 국어교육의 지름길이요 교육의효과를 높이는 요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글학회는 「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중국국민이 망한다」고 한 魯迅의 말로 그들의 주장을 대변했다. 우리는 한자를 없앨수 있는 훌륭한 한글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역사의 진전에는 보수적인 일부 세력의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라고지적했다.

한글학회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문화의 참조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문화의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의 글자생활을 한글로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의 근거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간편한 세계적 글자로 우리의 글자생활을 간편하게 할수 있다는 점과 인쇄가 간편한 점을 들었다. 현대는속도의 시대로 중국까지 로마자를 쓰려고 한다는상황에서 타자기등 기계화가 가능한 한글만이 국제경쟁에 뒤지지않고 따라갈수 있다는 것이다.

한자도 기계화가 가능하다고 반격하는 어문교육연구회는 한자혼용을 부르짖는 구체적인 이유로 우리말의70%가 한자어이고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틈에 끼어있는 한·자문화권이며 한자의 造語力은 우리말의 주요한 造語源임을 들었다. 한자는 이미 국내에서 2천년이상 사용해왔고 한글전용이 오히려 국어순화를 부르짖게한 큰요인이된 사실을 들었다. 조기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중학교까지에는 한자교육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語文教硏 漢字混用은 世宗大王 根本정신

"우리말 70%가 漢字語…1千8백字는 가르쳐야"

한글학회 民族文化 근대화위해 한글만을

"배우기·쓰기쉽고 印刷物등 打字化에 편리하다"

어문교육연구회는 그들이 주장하는 한자혼용위해 기초한자 1천8백자를 중심으로 한자교육의 목표를 제시했다. 기초한자 1천8백자중 국민학교에서 9백자, 중학교에서 9백자등 9년동안에 상용한자를 완전히 익히도록한다는 것이다. 그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재 진행중인 교과서를 학습한 범위안에서 국한혼용으로하고 국민학교 모든교사에게 한자교육강습을 실시하며 高入연합고사, 大入학력고사에 한자·한문출제의 비율을높일것을 제의했다.

한글학회는 이같은 어문교육연구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造語力이란 어떤 말에든 있는 현상이며, 글자이전의 현상임을 지적했다. 한자어를 한글로 적었다고 한자의 조어력이 없어지는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자문화권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사람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이런소리가 높아졌다면 중공의 8억주민이 쓰고있는 한자는 지금 우리가 쓰고있는 한자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글학회는 어문교육연구회가 주장하는 상용한자 1천8백자로 표기되는 말은 자주 쓰이는,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이런 말은 한글로 쓰더라도 전혀 불편이 없으며 우리 젊은 세대는 한글만으로 적은 글에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한자가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차라리 국어과목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시간에 우리 말을 정화하고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망했다. 【李炳日기자】

「警報機판매안」부결

美下院外交委 13일 本會議표결

【워싱턴7日UPI·合同=聯合】美하원외교위원회는7일 행정부가 제출한 對사우디아라비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판매안을 28대8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날 레이건 대통령은 이판매안에 반대했던 몇몇상원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약속받아 상원에서의 지지기반을 확보했다.

의회가 행정부의 법안을 봉쇄하기위해서는 상·하양원 모두가 과반수의 표를 던져야하는데 하원에서는 오는13일 본회의표결을 할 예정이지만 레이건 대통령의 對사우디 AWACS판매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표결은 이미 끝난거나 다름없다. 따라서 레이건행정부의 對사우디 AWACS판매여부는 상원의 표결결과에 달려있다.

샤즐리將軍 리비아로向發

反사다트團體 亡命지도자

【알제·니코시아7日AP·AFP=聯合】이집트망명지도자인 사데딘·샤즐리 前이집트군참모총장이 7일 그가 머물고있던 알제를 떠나 리비아의 트리폴리로 향했다고 샤즐리장군의 측근 소식통이 밝혔다.

트리폴리방송은 이날 샤즐리장군이 「이집트의 아랍방송」을 통해 「2번째성명」을 발표, 이집트새지도층이 이스라엘과의 캠프 데이비드협정을 파기한다면 자신은새정부에 협력할것임을 말했다.

暗殺전모 곧발표

【카이로8日AP=聯合】故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암살자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8일이나 9일중으로 발표될것이라고 카말·하산·알리 이집트외상이 밝혔다.

美航母、돌연 向埃

니미츠號 日程앞당겨 巡洋艦과함께

【베네치아7日AP=聯合】美지중해함대(6함대)의 주력항공모함인 니미츠호(9만1천4백톤)가 7일상오 돌연 베네치아항을 떠나 중동지역으로 향했다고 항만당국이 밝혔다.

지난5일 통상기항차 베네치아항에 들어온 니미츠호는 당초 9일 떠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이날 미사일장비순양함 미시시피호와함께 베네치아항을 떠났다.

미관리들은 니미츠호의 행선지에 대해 논평을 회피했으나 항만소식통들은 니미츠호의 목적지가 이집트인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중해의 미함정들은 리비아가 이집트의 권력구조 공백상태를 틈타 어떤모험을 저지르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비상대기상태를 일층강화했다.

20代 接待婦 피살屍

여관同宿 남자 手配

【釜山=聯合】8일상오11시 부산시東區草梁2洞1의 92해운여관(주인 崔경이·39) 202호실에서20대 남자와 투숙했던 조미숙양(23·東區草梁洞174)이 목과 복부등을 칼에 찔려 숨진것을 주인 崔씨가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崔씨에 따르면 조양은 7일하오8시께 서울말씨인 27세가량의 남자와 함께 술에 취해 이여관에 투숙했는데 날이샐 늦도록 인기척이없어 방문을 열어보니 조양만칼에 찔려 피범벅이된채 숨져 침대위에 반듯이 누워있었다는 것.

숨진 조양은 草梁洞174 소재 간이주점 양지집접대부로 밝혀졌다.

경찰은 東部경찰서草梁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 치정에의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조양과 함께투숙했던 남자를 찾고있다.

이주홍 兒童文學賞

朴洪根씨에 주기로

아동문학가 이주홍씨의 이주홍 아동문학상 제1회 수상자로 朴洪根씨(62·사진)가 뽑혔다. 수상작품은 동화 「야, 내 얼굴봤다」. 시상식은 25일 부산 수산대학 교수회관.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詩壇

공

정 대 구

아이들은 공을 가지고 놀고
공은 아이들을 가지고 논다.

내가 보기에 처음엔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게 아니라 심심해서 공이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짝궁이 자꾸 그게 아니라, 공이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심심해서 공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 우기는 바람에 나는 내 짝궁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짝궁인 나의 할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우리 둘이는 아이들은 공을 가지고 놀고 공은 아이들을 데리고 논다는 데에 합의를 보았다.

이상의 합의 내용은 누가 뭐래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수정하거나 굽히지 않을 자신을 갖는다.
우리 둘이는,

공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고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논다.

埃、對蘇·아랍관계 緩和예상

議會、大統領후보 무바라크 指名

◇기관총 亂射하는 狙擊犯　한저격수가 사열대앞에 서있던 안와르·사다트 대통령을 향해 기관단총을 난사하고있다。 바로옆에 주인잃은 TV카메라 한대가 서있고 뒤편으로 퍼레이드에 참가했던 蘇聯製군용트럭 한대가 보인다。 【카이로7일AP電=聯合】

軍部서도 支持확실

시나이 返還문제 對이協商 注目

西方관측

【카이로7日AP=聯合】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피살은 이스라엘과의 중동평화회담에 타격이 되었지만 그의 후계자가 될것으로 유력시되는 호스니·무바라크 부통령은 사다트 대통령이 추구해온 모든 정책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무바라크 부통령은 사다트사망후 즉각성명을 발표, 이집트는 사다트대통령의 평화노선이 올바르다는 신념하에 모든 그의 국내외정책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집트집권당인 국민민주당(NDP)에 의해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무바라크부통령은 그의 이같은 다짐을 착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을만한 배경을 갖고있다.

무바라크부통령은 6년6개월전인 지난75년4월 사다트 대통령에 의해 부통령에 임명될 당시 공군사령관이었으며 지금까지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왔다. 따라서 군부는 그가 집권하면 그를 지지해줄것으로보인다.

한 서방외교관은 그가 군장성들을 만족시키고 있고 또 군사쿠데타 가능성을 배제하기위해 현재 이집트 최대의 무기공급원인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77년 사다트의 역사적인 예루살렘방문으로 시작된 이집트-이스라엘간평화협상의 다음번 주요 시한은 67년 중동전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있는 시나이반도 문제를 마지막 매듭짓기로 되어있는 내년 4월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방외교관은 적어도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에서 철수하기전까지는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를 뒤흔들지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장기적인 안목으로보아 무바라크가 다른 아랍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지향해나갈것이며 어쩌면 소련과도 보다 균형잡힌 관계를 펴나갈 가능성이있다고 지적하면서 무바라크자신도 아직 이에대해 알지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이로7日AP·AFP=聯合】이집트국회는 7일 사다트대통령의 피격사망에 따른 특별회의를 열고 호스니·무바라크(53) 부통령을 오는12일의 국민투표에 입후보할 차기대통령단일후보로 압도적다수로 지명했으며 무바라크부통령은 이지명을 수락했다.

사다트被擊 직접目擊

未亡人 사열대 特別席에서

【카이로7日UPI=聯合】故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미망인 지한여사는 사다트 대통령이 저격되던 당시 군사퍼레이드 사열대 특별석에서 남편의 피격을 직접 목격했으며 병원에서 사망소식을 듣고 거의 졸도하다시피했다고 신문보도들이 7일 전했다.

보도들에 따르면 지한여사는 남편의 피격을 목도한후 승용차편으로 즉각 사다트 대통령이 실려간 마아디軍병원으로 직행, 수술실밖에서 결과를 기다렸으며 수술실로부터 의사한명이 큰소리로 울면서 뛰어나와 사다트 대통령의 운명소식을 알리며 「오직 神만이 영원하다」고 흐느꼈을때 거의 졸도하다시피했다.

지한여사는 그후 무바라크 부통령의 권고에 따라 진정제주사를 맞고 나일강변에있는 기자의 저택으로 돌아갔다.

지한여사의 세딸과 친지들도 사다트 대통령의 피격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으며 사망이 알려진후 주황색 베레모의 대통령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있는 기자의 저택으로 돌아가 무바라크부통령의 위로를 받았다.

美、對埃支援계속 宣言

헤이그 政府立場發表 外勢介入 절대不容

【워싱턴7日=聯合】헤이그美국무장관은 7일 이집트사태에 관한 미정부의 공식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故사다트 대통령의 유지를 다짐하면서 모든 「외세들」에 대해 사다트 대통령의 피살로 야기된 이집트국내사태에 개입하지말라고 경고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사다트 대통령이 중동평화협상의 「전적인 동반자」였다고 지적하면서 미정부가 「그의 유업」을 계속수행해 나갈것이라고선언했다.

그는 또 미·이집트양국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본결과 사다트 대통령암살이 정부전복음모의 일환이 아니었음이 판명됐으며 외세가 개입했음을 입증할만한 단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헤이그장관은 이어 미국이 중동의 평화를 계속추구하겠다는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부통령의 성명에 고무되고있다고 밝혔다.

外信안테나

■노벨平和賞수상자暗殺세번째=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불의의 죽음을 당한 세번째 노벨평화상수상자다.

지난64년 평화상을 수상한 미흑인인권운동가 마틴·루터·킹목사는지난68년4월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열린 인권운동집회참가중 피살됐으며 지난61년9월 콩고에서 비행기추락사고로 사망한 스웨덴의 다그·하마숄드 유엔사무총장의 경우도 우발적사고에 의한것으로 공식발표됐으나 고의적인 사고유발에의한 것이라는 추측이 끊임없이 나돌고있다.【오슬로=UPI】

葬禮式에 레이건불참

【워싱턴8日=李淳燦특파원】10일의 사다트장례식에 레이건美대통령과 부시부통령이 참석하지않기로 결정한것은 정치란 냉혹한것이란걸 되새기게 한다.

레이건 대통령의 사다트장례식 참석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레이건행정부내에서 열띠게벌어졌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참석반대를 강력히내세운 CIA의 주장이 채택된 것이라고 美NBC·TV방송은 보도했다. 부시부통령도 같은이유로 참석하지말것을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주장했다는것이다. 美의회의 고위지도자들도 카이로行을 거부했다.

백악관은 오닐하원의장, 베이커공화당 상원원내총무, 버드민주당상원원내총무, 미셸공화당하원원내총무, 퍼시상원외교위원장등 5명에게 장례식 참석을 요청했으나 수락한것은 퍼시의원뿐이다.

모험심에 가득찬 미국의 개척자정신이 원숙해졌다는것을 뜻하는 것일까.

미국朝野, 심지어 국민학교 학생들까지도 「평화창조자」「평화의 챔피언」이라며 사다트의 죽음을 슬퍼했다.

사다트가 다수 아랍사람들로부터 배신자란 냉대를 받았으나 미국사람들에게는 「평화창조자」로 비친것은, 사다트가 미국이 원한 (물론 이집트의 국가이익도 되는) 이스라엘과의 평화를위해 생명의 위험을건 예루살렘行을 결행했기 때문이다.

사다트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길에 카이로 도심지까지 생명을 건거나 다름바없는 무개차행렬을하여 이집트국민의 환영을 받았고 「평화창

時評의 리포트

保安문제 둘러 싸고

열띤·贊反논쟁 벌여

조자」라는 이미지는 미국TV의 전파를타고 세계에 번져갔다.

사다트는 위험이 뒤따르는 예루살렘行을 했으나 레이건은 위험이 뒤따르는 카이로行은 하지않기로 했다.

사다트장례식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할 외국국가원수는 미국대통령일 것이다. 中東문제전문가 조셉·시스코前국무성차관은 레이건의 장례식不參결정이 이상적인 결정은 못되나 신중하고 현명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외국원수의 장례식참석에 카터, 포드, 닉슨등 세 전직대통령이 나란히 참석하는 것도 아마 미국역사상 처음있는 일일 것이다. 탄핵된거나 다름없는 닉슨前대통령이 미국정부와국민을 대표하는 공식사절단에 포함된것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헤이그국무장관이 세전직대통령이 낀 장례식참석사절단 단장이며 官用비행기내에서도 세전직대통령보다 앞의 가장좋은 좌석에 앉게 된다고한다.

禮遇의 미묘함이 강조되는 동양적관행으로보면 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더구나 헤이그가 세 전직대통령밑에서 가깝고 중요한 公職을맡았던 것도 재미로운 일이다.

헤이그에게는 카이로행이 재미로운 것만은 아니고 입맛이 쓴 여행일는지 모른다. 헤이그의 한 보좌관은 『레이건은 지난봄, 헤이그가 원한 국내의위기관리위원장職에는 부통령 부시를앉히고서 정작 위기여행에는 위기관리委부위원장을 보낸다』며 불평했다는 것이다.

메아리

영어 알파베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부딪치는 어려움이 인쇄체와 필기체의 구별이다. 입문생에겐 두가지 글씨모양 때문에 알파베트가 26자가 아닌 52자로 늘어나 보인다.

두 글자체를 익히면 자연스럽게 그 편리함을 깨닫는다. 글자의 멋과 아름다움이 다를뿐 아니라 필기체는 글을 빨리 쓸 수 있게 하고 인쇄체는 독서의 능률을 높인다.

한자는 다섯가지 서체가 있다. 전서(篆書) 해서(楷書) 예서(隸書) 초서(草書) 행서(行書)다. 서체에 따라 쓰는이의 감정이 자유롭게 표현된다. 이 다양함이 한문권에서 서예를 높은 예술의위치로 끌어올렸다.

우리 한글의 글자꼴은 활자체와 궁체(宮體)로 나뉜다. 한글의 조형미를 살려 좀더 아름답게 쓰고 가꿀수는 없을까…。 한글의 미화작업이 몇몇 한글학자와 생활미술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것으로 안다.

글자모양을 지금보다 더 예쁘게 다듬고 산만한 글자꼴을 짜서 있는 모양으로 고쳐보고자 머리를 쓰고있다. 한글은 한자와 마찬가지로 네모꼴의 공간에만 쓰여 진다. 그래서 가로쓰기를 하면 진종력이 떨어져 독서능률을 저하 시킨다. 선과 획에 공간개념까지 도입한 글자모양을 개발해서 독서능력을 극대화 하자는 의도다.

한글서예도 많이 발전한것 같다. 어느 한글서예가의 의견을 들으면 우리글에 한자의 획과 공백의 여운을 끌어들여 서예의 멋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국어가 풀어가야할 숙제는 여러가지다. 한글전용의 근본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을두어 해결해야 할일이다. 표준어 사용과 외래어표기는혼선을 빚는다. 이런 난제들은 단계적으로 「정답」을 찾아내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우리는 「생활속의 국어」에 좀더 관심을 두어야겠다. 우선 눈에 거슬리는 것이 간판의 한글이다. 오기·오식도 부끄럽지만 글자가 너무 딱딱하고 획일적인 느낌을준다. 특히 고딕체가 지나치게 감세를 부린다. 눈길을 끌기보다 피곤감이 더해진다.

간판을 예술로까지 승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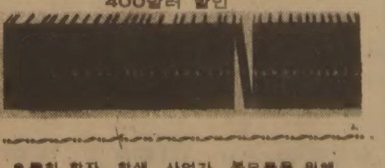
모든 간판이 마치 위험한 공사장의 경고판처럼 보여서는 안되겠다. 한글날을맞아 부드러운 「한글의 미학」을 생각해 본다.

한글의 美學

BRITANNICA

NOW 30 VOLUMES!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 용 목 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 MON. TUES. WED. SAT.　9 : 30—6 : 00
THURS. FRI.　9 : 30—9 : 00
•신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MRS. PARK
202 SPADINA AVE.　☎ : 363—6077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失踪여대생 漢江서 變屍로

登校後 4일만에 自殺추정…경찰搜査

여대생이 집을 나간지 4일만에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6일 상오7시50분께 서울龍山區二村洞 제1漢江橋아래 漢江한가운데서 李玉양(19·高大인문계열1년)이 숨진채물위에떠있는것을고기잡이하던 趙得浩씨(32·서울銅雀區本洞12?)가 발견, 서울龍山경찰서에신고했다.

숨진 李양은 지난2일 등교한후 집으로 돌아오지않아 가족들이 경찰에가출신고, 그동안 수배가 돼있었는데 8일하오 가족들에의해 신원이 확인된것.

가족들에 의하면 李양은지난2일 상오8시께 집을나선 후 이날하오 8시께 서울冠岳區奉天10洞34의33 朴守植씨(32·회사원) 집에서 함께 자취하던 오빠 李寶相씨(25·서울大대학원2년)에게 전화를걸어『친구와 저녁을먹고 들어가겠다』고 말한뒤 돌아오지 않았다.

집을 나갈당시 李양은 베이지색점퍼에 갈색T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책가방으로사용하는 검은색 우단손더백을 메고 나갔는데 발견당시에는 바지와 셔츠차림에 갈색샌들만 신고있었으며 전자손목시계와 가족들이 갖고나갔다고 주장하는 현금3만여원이 없어졌다.

한편 李양에대한 사체부검을 실시한 경찰은 외상이나 목졸린 흔적을 발견하지못했고 음독여부에대한 정밀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키로했다.

◇변사한 李玉양

자전거로 登校하던 男妹 트럭에치여 死傷

8일 상오8시30분께 서울道峰區倉洞286 창동국교 앞길에서 李康運씨(43·대門2洞山4의36)의 2남1녀 京玉양(13·雙門中1년)과 장남 訓在군(12·창동국교6년)남매가 한일통운소속 서울8아5916호 8톤 트럭(운전사 金敬學·26)에 치여 京玉양은 숨지고 訓在군은 중태다.

사고는 동생 京玉양을 자전거앞 프레임에태워 등교를 시켜주던 訓在군이 좁은길을 가다 마주오던 화물트럭을 피하지못해 일어났다.

캐나다女人 집앞서 被襲

加銀行 支店지배인 夫人 怪漢 돌맞고 現金든 핸드백 뺏겨

7일 하오3시50분 서울西大門區延禧1洞421의67주택가 골목길에서 캐나다노바스코샤은행 서울지점 지배인 R·W·엘리슨씨(28)의부인 그레이스·엘리슨씨(29·서울西大門區延禧1洞421의65)가 20대청년으로부터 돌로 머리를맞고 현금11만1천원이든핸드백을뺏겼다.

엘리슨씨에의하면 이날 근처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사고 집앞 10m지점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25세가량의 점퍼차림 청년이 돌로 자신의 뒷머리를 쳐 쓰러뜨리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났다는것.

이 피습으로 엘리슨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서울 延禧洞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歸順 姜亨順씨결혼

월남귀순한 姜亨順씨(27·大宇개발근무)가 8일 하오2시 서울鐘路예식장에서 金美惠양(24·忠南江景女高卒)을 맞아 결혼식을 올렸다.

姜씨는 북괴군제5사단 民警隊7중대 정치보위부지도원(소위)으로 복무하다 79년7월5일월남, 귀순했다.

加 한국外換은행 터론토서 開店式

한국외환은행의 현지법인 캐나다한국외환은행의 개점식이 6일 상오9시(현지시간) 터론토에서 李揆旺 캐나다대사, 鄭春澤외환은행장등비롯현지금융계인사다수가 참석한가운데 개최되었다.

◇英國서 개발실험중인 태양열乘用車

태양열을 이용한 승용차가 개발되어 영국에서 실험중에 있다. 차의 지붕에 36개의실리콘셀트가 부착된 집열판이설치되어있다. 이집열판을 통해 수집한열로 1백40와트짜리 전기모터를 돌려 한개의 뒷바퀴를 움직이게한다. 【英國대사관제공】

主婦상대 5억詐取

40代女人구속 "政府米싸게구입" 22명울려

【濟州=聯】 제주도경은8일 정부미를 빼내주겠다고속여 정부양곡도정공장에서 싼값에 살수있다고 22명의 가정주부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張春子씨(46·여·濟州市禾北洞1618)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張씨는 지난79년11월 평소 안면이있는 梁모씨(48·여·濟州市禾北洞)에게 접근,『정부양곡가공공장인 S정미소에서 싼값에쌀을구입해 시중에 팔면 큰이익이 남는다』면서 계약금조로 2천8백만원을 받아 가로챈것을 비롯,7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2명으로부터 1백여회에걸쳐 모두 5억1천2백만원을 사취했다는것.

張씨는 시중 양곡상에서구입한 쌀을 정미소에서 선전한것처럼 부자가들에게 선전한후 다시 시중에 판뒤 이익이 많이 남았다며 일부의 이익금을 돌려주는 수법을 써오다 지난해 겨울 계약금이 5억여원으로 갑자기 불어나자 종적을 감췄다 이번에 검거됐다.

科學책 讀後感등 金賞11명등 施賞

제3회 전국학생과학책읽기운동(주최=과학기술처·한국일보社) 독후감 응모입상자와 바다의 노래(주최=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한국일보社) 가사 응모자에 대한 시상식이 8일상오11시 尹日善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 5백여명의 수상학생과 가족이 참석한가운데 전경련 국제회의실에서 베풀어졌다.

이날 元貞允양(16·서울여고2년)등 금상수상자 11명에겐 상장과 장학금(각10~15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은상 23명(장학금 각5~9만원) 동상 70명(〃 각2~4만원) 장려상 1천8백명(부상 4천원상당의 과학도서) 가작상 1천2백명(〃 3천원상당의 〃)에 대한 시상과 지도교사상 11명, 단체상 3개교,공로상 11명에 대한 시상과 표창이 있었다.

또 이날 바다의노래 가사응모입선자 6명(당선2명,가작4명)에 대한 시상도 겸했다.

올 전국학생과학책 읽기운동엔 전국에서 98만4천9백4명이 참가했다.

文化短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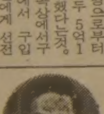
「올해의 音樂家」賞 지휘자 洪燕澤씨에

한국음악협회(이사장 曺祥鉉)가 세계음악의날을 맞아 제정한 제3회「올해의 음악가」상 수상자로 지휘자 洪燕澤씨(54·사진)가 선정됐다.

洪씨는 서울음대 작곡과출신으로 빈 아카데미 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국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음대교수로 재직중.

시상식은 10일하오6시 백남빌딩31층에서 열리는 세계음악의 날 기념식에서 거행된다.

在美원로畵家 李馬銅씨



在美중이던 원로서양화가 李馬銅씨(사진)가 지난5일 밤11시(한국시간 6일하오2시) 시카고 근교에있는 아파트에서 별세, 7일 시카고의 한국교포묘지에 안장됐다. 향년75세.

충남牙山출신인 李화백은 1932년 東京美術학교를 졸업하던 해 鮮展에 작품「男」으로 특선, 昌德宮賞을 받아 화단에 발돋음한이후 國展심사위원(2~18회) 및 위원장, 美協會長(56년), 弘大학장(69~71년)등을 역임했다.

한국일보

학생들 敎授에대해 否定的

崇田大 「교수와학생간 인간관계」조사

대학생들은 교수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반대로 교수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崇田大학생상담연구소는 동교교수60명과 학생70명을 상대로「교수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를 연구조사,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교수를 대해주는 태도를 74.7%가 긍정, 24.9%가 부정적이라고 추측했다. 이에반해 학생들은 교수들이 학생을 대해주는 태도를 29%가 긍정, 70%가 부정적으로 추측, 교수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교수와 학생간의 이해도·신뢰도·공정도·존중도·애정도등 5가지측면을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조사에서 상호이해도도 교수들은 46%가 학생들이 자신을 약간 이해하여 주고있고, 40%는 약간 이해를 못해주는편이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생들은22%가「교수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53%가「약간 이해못하고 있다」고 역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신뢰도도 학생들은 부정적이었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잘 믿거나(66%) 아주 잘믿을것(10%)이라고 긍정적인 추측을했다. 이에비해 학생들은 교수들이 약간믿지않거나(49%), 잘믿지않는다(14%)는 부정적반응을 보였다.

공정도는 교수들의 83%가 학생들이 교수를 대할때 공정한 편이거나 많이 공정할것이라고 추측했으나 학생들은 92%가 교수가 학생을대할때 약간 불공평하거나불공평하다고부정적추측을했다.

존중도만이 상호 긍정적인 대답을했다. 83%의 교수가 학생들이 교수를 존중한다고 생각했고 학생들은 67%가교수들이 학생을 존중한다고보았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價格조정·支援자금등 감축"

動資部、저질炭업자·鑛山에

8일동자부는 앞으로 연탄의 발열량이 기준열량(4천3백70~4천6백칼로리)에 미달, 炭質유지가 되지않을경우 앞으로 가격조정때 이를반영시켜 부당이득분만큼 原炭값을 차감·조정하고 3천칼로리미만의無級炭을생산하거나거래하는탄광업자와연탄업자엔저탄자금등 동자부지원자금을감축하기로 했다.

동자부는이밖에 탄광업자와 연탄업자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위해 검사를 강화하며 탄광업자에 選炭시설을、연탄공장엔 배합시설을 조속히 갖출것도지시했다.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⑥⑤

麗順叛亂의 교훈

共産叛徒들 경찰·老少良民 마구 학살

現地시찰 慘狀목격 그들의 屬性實感

建國한지 두달밖에 되지않은 48년10월19일 조용한 항구도시 麗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지원명령을 받고있던 麗水의 14연대 안에 있던 공산푸락치가 외부의 공산세력과합류, 반란을 일으킨것으로 곧 인근인 順天으로 번졌다. 위급한 상황이 연달아 중앙에 보고됐다. 麗順반란사건이다.

麗順반란은 李承晩 대통령이 美極東軍사령관인 맥아더장군의 초청을받고 極東의 반공태세강화책을 협의하기위해 일본에간 직후에 터졌다.

李 대통령은 긴급연락을 받고는 그 다음날 서둘러 귀국했다. 이제 막 출발직후인지라 정부로서는 크게 당황했다. 당시는 그렇찮아도 질서가 잡히지않아 내무행정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할때였다. 麗順반란이 일어나기 직전만해도 나는 釜山、大田、金泉、馬山등 각지를 초도순시하고 돌아와 치안강화책을 세우고 있는중이었다.

麗順사건은 그야말로 뜻밖이었다. 그때쯤엔 정부수립전부터 左翼의 폭동、騷動으로 시끄럽던 智異山과 濟州道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앞서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좌익반란은 7월중순께 일단 진압되었으나 10월들어 소련의 10월혁명기념과 때를 같이해 폭동이 다시 일어났다. 10월2일엔가 제주도폭동대비책으로 急派했던 軍警예비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濟州일대는 無政府상태나 다름없었다.

이 제주도폭동 소탕작전을 위해 지원명령을 받고있었던 麗水의 14연대중 1개대대가 출발을 준비하던 중 중위 金智會를 주동으로 40여명의 南勞黨출신이 장병들을 선동, 반란을 일으킨것이다.

이들은 비상소집이라는 명목으로 사병을 규합 선동해、병기고 탄약고를 파괴、약탈했다. 밤중엔 시내에 들어가 관공서、경찰서를 습격하고 많은 시민을 닥치는대로 학살했다. 반란이 일어나자 地下에있던 현지 左翼끄나풀들까지 加勢、덩달아 날뛰었으며 叛徒들은 경찰관만 수백명을 죽였다.

반도들은 다음날 아침에는 麗水시를 거의 점령한뒤 지방의 공산분자를 규합해 2천여명이 順天市로 난입했다. 그들은 順天경찰서를 점령하고 光州쪽으로 공격할 태세를 취했다.

急報에 접한 국군은 光州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宋虎聲사령관을 임명했다. 국군제2、제5여단이 반란진압에 나섰다. 국군은 반란이 일어난지 이틀뒤 반란군을 완전히 포위하고는 다음날인 22일 順天을、25일엔 麗水를 각각 탈환했다. 반란군들은 상당수가 射殺됐으나 일부는 智異山이나 濟州로 도망쳐 숨었다. 반란 토벌작전에는 해군이 함정을 출동시켜 해안을 봉쇄하고 항공기지사령부에서는 20여대의 경비행기를 동원、반란군을 정찰하고 投降을 권고하는등 입체작전을 펴기도했다.

토벌작전을 지원하기위해 내무부에서는 黃義贊차관이 경찰관 3백명을 인솔하고 현지로 내려가 국군과 합류했다.

나는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던 李範奭국무총리와 함께 光州로 내려갔다. 光州에선 정보관계책임자인 白善燁중령과 美고문관인 하우스맨중령이 기다리고 있다가 상황보고를 했다. 브리핑을 들은뒤 李총리와 나는 叛亂이 일어났던 현지를 시찰했다.

麗水와 順天에서 벌어진 상황은 慘酷한 모습 그대로였다. 도저히 눈뜨고는 못볼 慘狀이 눈앞에 전개돼 있었다.

시민들이 도처에서 학살당했고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을 가솔린을 퍼부어 태워죽인 모습도 있었다. 같은 同族을 이렇게 무참히 학살할수 있는가. 天人共怒할 일이었다. 麗順叛亂은 내부의 약점을 일깨워준 사건이자 공산주의자의 屬性과 實體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6、7년전 캄보디아에서 무수한 同族을 학살한 만행을 전한 外信의 사진을 보았을 때 나는 30여년전 麗順叛亂의 현장을 연상했다.

반도들은 소위 인민재판을 열고 무고한 동포들을 학살했다. 그때 반란군에게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한것은 경찰관과 그 가족들이었다.

당시 시체더미속에서 남편과 자식、아버지를 찾으며 몸부림치던 그 가족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기만 하다. 나는 경찰행정의 책임을 맡은 주무장관으로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었다.

국군이 麗·順지구를 완전히 탈환한 것은 반란이 일어난지 일주일뒤였다. 그직후 유엔韓委가 유엔총회에 점령군의 계속주둔을 요청한것도 이같은 국내의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서였다.

반란 2주일후엔 주동자 89명의 死刑이 집행됐다. 그날 국회에서는 黃斗淵의원의 麗順반란사건 관련혐의와 구속영장의발급여부를 규명키위해 내무、국방、법무장관과공보처장의출석동의안을 가결했다.

閣議에서는 근본적인대책을 세우기위한 논의가 벌어졌다. 제주도에선 여전히 불안이 계속되고 있었고 반도들의 일부가 합류한 智異山일대에선언제 또 무슨일이 터질지 모를 상황이었다.

국군의 출동으로 麗順사건은 일단 진압되었지만 이사건은 國軍이 허술했던 建國初에 너무나도 엄청난 시련이자 國難이었다. 北傀와 在南좌익세력들은 나라가 더튼튼해지기전에 奇襲一擊을 가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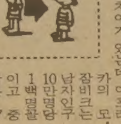
어떻게보면 이는 후날있을 6·25같은 全面南侵을위한 저들의 첫시험이라고 할수있다.

◇麗順叛亂사건은 建國후 첫國難이었다. 사진은 叛亂을 진압하기위해 出動을 기다리는 전투경찰대.

現代人의 健康百科

肝癌과 원인

50~60代에 빈발…B형肝炎이 主因



간암은 간에 생기는 질환중 급성간기능부전증과 더불어 가장 치명적인 肝질환의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암、폐암、자궁암등과함께 가장 흔한 암중의 하나로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약5배정도많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

간암의 발생 빈도는 각나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아프리카의 모잠비크는 남자인구 10만명당 1백명꼴이고 중국은 17명、일본 4·6명、미국은 27명꼴인것으로 알려져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하리라는 추측만 할뿐 정확한 통계가 없는것이 안타까운일이다.

간암의 원인으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물질을비롯 간경변증、B형 간염바이러스의 장기간 감염및 성호르몬제등이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장중요한 원인은 역시 B형 간염바이러스에의한 장기간 감염을 들수있겠다.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약 70%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가 현재 혈액내에서 증식하고있다는 증거가 검출된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 된적이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환자를 합치면 무려 95%에 달한다. 한편 우리나라 간암환자의 80%에서는 간경변증이 동반되고 있다.

이러한 검출률은 미국에서는 간암환자의 약20%에서만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 항원이 검출된다는 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하는 지역이어서 B형간염바이러스와 유관한 급성간염、만성활동성 간염및 간경변증이 많고 따라서 간경변증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간암의 발생도 많은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B형간염이 만연된 지역에서는 B형간염 환자인 어머니로부터 자식에게로 출생직후 곧 B형간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이렇게 수직 전파된 B형간염 바이러스는 성인이 될때까지 피나 간속에 남아 있으며 만성활동성 간염이나 간경변증을 일으킬수 있을뿐 아니라 나아가 간암을 유발한다고 보고있다.

한 가정에 간암환자가 여러명 발병하는 경우를 가끔 경험하게되는것은 이때문인것으로 보고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이외에도 땅콩등에 기생하는 아스파질러스라는 곰팡이에서 생기는 아플라톡신、그리고 남성 호르몬제인 메칠테스토스테론등을 많이 섭취할때 간암을 일으킬 수 있으나 우리나라 간암의 원인으로서의 역할은 무시될 만하다.

金丁龍 【醫博·서울醫大·소화기내과장】

流星의 賦 <20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何處 秋風至 ①

기축년, 즉 선조 22년 홍계남의 나이 26세가 되던해이다.

사용(司勇)으로 입신한 그가 부사맹(副司猛)의 직을 거쳐 사맹(司猛)으로 승진될 참이었다. 사맹이면 정팔품(正八品)이다. 그런데 이 발의가 있었을 무렵부터 부내에 소문이 돌았다.

『홍계남은 서출(庶出)조차도 못되고 비녀(婢女)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런 극천(極賤)의 출신을 정팔품에 올릴 수 있느냐』

는 것이었다.

북변(北邊)의 소요가 심하여 군관이 부족하게 되자 말단 군관의 등용엔 서얼、천출이 그다지 문제가 안되었던 당시이긴 하지만 비녀의 소출이라고 하면 문제가 또한 달랐다. 비록 정팔품이긴 하지만 임금을 받드는 청관(淸官)의 서열임엔 틀림이 없는데 그 서열 속에 그러한 극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명분(名分)이었지만 사실은 승진(昇進)에 탈락한 김모(金某)를 둘러싼 동인(東人)의 졸개들이 고의로 퍼뜨린 수작이었다.

이 소문은 드디어 돌고돌아 홍계남 본인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홍계남은 전신이 분노로서 불덩어리처럼 되었다.

모함의 장본인(張本人)을 찾기 시작했다. 어떤일이 있어도 그놈을 찾아내어 백주 당당히 그놈을 한칼에 베고 응분한 처단을 받을 각오였다.

그는 각오한 바를 숙랑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다.

『임자와 나 사이가 어언 6년동안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다 맛본것같은 느낌으로 흐뭇하오. 임자의 정애는 실로 백골난망이오. 임자가 없었던들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소. 하나 이러한 기쁨도 끝날날이 온것 같소. 임자에겐 이미 말한바 있지만 내 어머니는 불운한 선비의 딸이었소. 그 아버지는 아무런 죄도 없이 장살(杖殺)을 받고 처자는 노비의 신분으로 떨어졌소. 그러나 그 몸과 마음을 지녀온 정성에 있어선 어떠한 명류의 부인에게도 손색이 없을거요. 그런데 요즘 내 주변에서 나의 어머니가 비녀라고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소. 이 어찌 창피 막심한 일이 아니겠소. 비록 애써 효도를 행할 입장에 있진 못한다고 하지만 어머니를 욕되게하는 그런 풍문을 좌시할수야 있겠소. 나는 그런 풍문을 퍼뜨린 장본인을 찾아내어 백주대로(白晝大路)에서 사정을 밝히고 그놈의 목을 베어서 어머니를 위해 설원(雪冤)할 참이오. 그러니 언제 아침에 나간채 영영 돌아오지 못할날이 있을지 모르오. 내가 돌아오지 않는날엔 설원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시오. 나 구천(九天)의 저편에서 임자를 기다리겠소』

이숙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되더니 와들와들 몸을 떨며 [illegible]、이윽고 붓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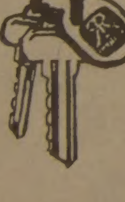
『誰抑子爲母之行(수억자위모지행)』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아들의 행동을 누가 막을 수 있으리오、하는 뜻이다.

계남은 그 글을 보며 말을 보탰다.

『이 일은 누구에게나 발설해선 안되오. 특히 임자의 오빠가 알아선 안되오. 아시겠소?』

줄기 줄기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으려고도 않고 숙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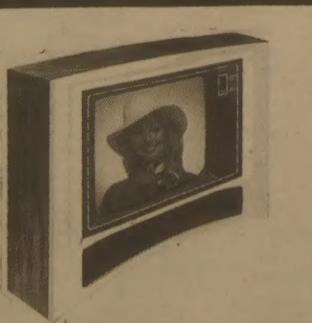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I.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 생명교육보험
* RRSP
(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흥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延大、光云꺾고 覇權차지

劉漢徹盃 전국 아이스하키 高等部 中東·普成쟁패

제1회 劉漢徹배 전국아이스하키대회 사흘째경기가 7일 동대문 실내링크서 속행, 延世大는 신예 光云工大를 5—2로 꺾고 2승을 기록, 대학부 우승을 차지했다. 延大는 이날 1피리어드 6분30초께 潘鍾浩가, 12분께는 李在運이 각각 한골씩을 뽑아 선제 리드를 잡았으며 2·3피리어드서도 3점을추가, 여유있게 승리했다. 光云工大는 2피리어드 11분께 李煥揆가 1점을 만회하고 마지막 피리어드 13분30초께 金英燦이 한점을 보탰지만 역부족이었다.

한편 고등부준결승서는 中東高가 慶熙高를 3—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 普成高와 우승을 다툰다.

◇제3일전적

▲대학부리그

연세 5 (1 2 2 / 1 1 0) 2 광운공대
(2승) (1패)

▲고등부준결승

중동고 3 (2 1 0 / 0 0 0) 0 경희고

野球協 조직위構成 世界아마대회 對備

대한야구협회는 82년의 제27회 세계아마야구선수권대회에 대비, 8일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직위원회는 위원장(林光延회장) 부위원장(盧禎鎬·金相謙부회장) 사무총장(許宗萬전무이사)과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재무·총무·식전업무를 맡을 총무위원장에는 宋鉉淳씨(기획·경기이사) 수송·의무·경비·선수촌관리를 맡을 관리위원장에는 李八官씨(총무이사), 홍보·섭외·통신업무를 관장할 홍보·국제위원장에는 朴象圭씨(국제이사) 경기·시설·기록을 담당할 운영위원장에는 金東燁씨(이사)가 선임됐다.

亞洲사격開幕

15일 한국등 15개국參加

北韓의 出戰여부아직未知數

제3회 아시아여성 사격선수권대회가 오는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막된다.

이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中共, 日本등 15개국 2백여명이 출전하는데 北韓의 참가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국은 10명의 대표선수를 선발, 泰陵종합사격장서 강훈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은 中共에이어 준우승을 목표로 하고있다. 한국은 특히 공기소총과 공기권총서 좋은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출전선수는 세계대회 공기총주니어 단체 금메달리스트인 孫玉粉(기업은)을 비롯 金榮美(한일은) 高英姬 辛姬(이상국민은) 崔東實 金仁淑 金惠英(이상지도단) 韓容順(주택은) 河末守(서울신탁) 등이다.

올해의 人物로 崔元碩씨 선정 日탁구리포트誌

일본의 탁구전문지인 탁구리포트誌는「올해의인물」로 대한탁구협회 崔元碩회장(사진)을 뽑았다고 8일대한탁구협회에 알려왔다.

탁구리포트誌는 해마다 국제탁구발전에 공이많은 인사를 선정, 시상해오고있다.

상패는일본탁구용구메이커인 버터플라이사 다마쓰 사장이 탁구리포트지의 의뢰를받고 오는13일 내한, 崔회장에게 전달한다.

파나마 IOC委員 레온夫婦 12일來韓 태권聯초청

파나마출신의 IOC(국제 올림픽위원회) 위원 비르질리오·레온씨 부부가 金雲龍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의 초청으로 12일낮 내한한다.

레온씨는 西獨 바덴바덴의 IOC총회서 88년도 제24회 하계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는데 많은협조를 한사람이다.

레온씨는 서울에 머물면서 각종 스포츠시설을 돌아보고 태권도의 올림픽종목채택에 대한 문제를 金雲龍총재와논의할 예정이다.

駐韓使節 47명 초청

體育會 62회 전국體典개회식에

대한체육회는 10일 서울운동장서 개막되는 제62회 전국체전개회식에 47명의 주한외교사절을 초청, 관람토록했다.

체육회는 또 이번체전부터 폐회식시상때 올림픽 대회와 같이 종합우승시도의 시도가(歌)를 연주키로했으며 차기대회개최지체육회장(시장·도지사)에게 주최시도 체육회장이 대회기를 인계토록했다.

서울信託銀 탁구팀 베니스로 12일출국 벨기에오픈參加

서울信託銀行 여자 탁구팀은 15일부터 베니스서 열리는 이탈리아 오픈과 31일부터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제9회 벨기에·오픈에 참가하기위해 12일 출국한다.

◇선수단

▲단장=林炳斌▲감독=朴鎭大▲섭외=金知化▲선수=盧銀玉·金福姬·金成子·尹環美·朴末蓮

신시내티 컨셉션 31억원에 再契約

【신시내티7日AP聯=聯】신시내티·레즈의 유격수인 데이브·컨셉션(33)은 86년까지 5년간 연봉4백50만달러(한화약31억5천만원)로재계약, 신시내티구단서 최고연봉 선수가 됐다.

금년 시즌으로 계약이끝나는 컨셉션은 프리·에이전트로 나서려던 당초계획을 취소하고 7일 전격 재계약에 응했다. 이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딕·와그너 레즈팀회장은「유격수 로서는 메이저 리그 사상 컨셉션이 최고의 대우를 받게됐다」고 밝히고 계약기간중 부상등으로 출장할수 없더라도 보수는 지급하겠다고 말해종래의 레즈팀 관례를 깼다.

5차례나 골드·글러브賞을 받았던 컨셉션은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금년시즌 3할6리, 67타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14게임에서 결승타점을 올려 이부문 수위를 마크했다.

蘇 월드컵본선진출 터키를 3대0꺾고

【이즈미르(터키)8日AP聯=聯】蘇聯은 터키 이즈미르서 거행된 월드컵 축구유럽3조 예선에서 터키를 3—0으로 물리쳐 4승1무로 월드컵본선진출이 확정되었다. 남은 한자리는 똑같이 4승1무1패를 기록하고있는 체코와 웨일즈가운데서 한팀이 결정된다.

金 外大大學院長에 스페인國王이 敍勳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장 金二培박사(52)가 지난7일 후앙·카를로스 스페인국왕이 수여하는 이자벨·카톨리카 훈장 기사장을 받았다.

◇쿠에르노 주한스페인대사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고있는 金二培박사.

올림픽1世紀

서울大會 계기로본 人類의 祭典 <7>

1972년, 베를린에서의첫 올림픽후 36년만에 2차대전패전국 독일의 뮌헨에서 제20회 올림픽이 열렸다. 독일인다운 치밀성과 조직적인 준비로 뮌헨올림픽은 시설과 운영면에서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대회로 평가되었다.

올림픽사상최대규모인 1백22개국 7천1백47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처음으로 北韓이 올림픽에 참가했다. 4천명에 달하는 보도진이 모였으며 전세계를통해 10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텔리비전중계를통해 세계의 스포츠제전을 즐겼다. 올림픽의 지나친 비대화가 우려되기도했다.

독일이 준비한 이올림픽은뜻밖에도 아랍의 극렬테러단에 의해 피로얼룩지고 말았다. 대회가 중반의 고비에 이른 9월5일 팔레스타인의 테러집단인「검은九月단」이 선수촌을습격, 11명의 이스라엘선수들이 희생되었다. 뜻하지 않은 이사건으로 올림픽은 중대한 위기를 맞았으나 24시간의 중단끝에 재개, 무사히 전경기를마쳤다. 이사태후 이스라엘은 세계어느곳에서나 보안상의문제로 환영받지못하는존재로 고통을당했다.

話題만발한 뮌헨大會

센세이션일으킨 體操요정코르부트

美스피츠、水泳서 올림픽 첫 7冠王

在日동포 吳勝立은 유일하게 유도에서 銀메달 획득

뮌헨올림픽에 출전한 키1m53, 체중39kg의 17세소녀 올가·코르부트는 현대스포츠에 센세이션을 일으켜 놓았다.

이눈부신 체조의 꼬마요정은 현란한 연기력과 상상할수없는 고급난도의 묘기로 전세계의 스포츠팬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마루운동과 평균대연기는 서커스보다 더 위험하고 아찔한것이었다. 평균대에서 2바퀴의 공중회전을해낸 코르부트의 연기에대해 한 심판은『체조의 채전한계를 넘어선것』이었다고 혀를찼다.

코르부트는 이 올림픽에서 단체·마루운동·평균대서 3개의 金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코르부트의 더큰영광은「세계 스포츠팬들의 사랑」이란 애칭과 美國을 비롯한 세계체조계에 불어넣은 새바람이었다.

코르부트로인해 라리사, 세묘노바·라티니나, 베라·차슬라브스카, 루드밀라·투리셰바등 기성의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미를 바탕으로하던 여자체조는 깜찍스러운 소녀들이 고급난도의 묘기와 발랄함을 겨루는 경연무대로 바뀌게되었다.

73년 美國을 방문한 소련체조선수단의 마스코트 올가·코르부트는 체조에 무관심했던 美國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으며 닉슨 대통령에 의해 백악관까지 초청되었다. 그가 가는곳마다 팬클럽이 조직되었고 기념티·셔츠가 날개돋친듯 팔려나갔다.

그러나 올가·코르부트에게도 시련이 다가왔다. 국제체조연맹은 평균대에서의 2바퀴공중회전등 코르부트가 해낸 몇가지 묘기를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금지조처를 내렸다. 코르부트는『체조선수의 창의를 막는 짓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체조를 할수있는가』라고 크게 반발, 한때은퇴의사를 밝히기도했다.

올가·코르부트의 센세이션은 크고 강했으나 短命했다. 스포츠의 기록이 상상을 초월해 끊임없이 경신되듯이 체조의 요정 코르부트도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는 新요정 나디아·코마네치의 출현으로 빛을 잃고 말았다. 코르부트는 78년 팝송가수 레오니드·보르트케비치와 결혼, 벨로러시아 청소년체조팀의 트레이너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올림픽사상 최초의 7冠王이 탄생된 곳도 뮌헨이다. 美國의 치과대학생 마크·스피츠는 1m86의 늘씬한 체격과 오마·샤리프를 닮은 잘생긴 얼굴에 콧수염을 달고 마치 핵잠수함처럼 7종목에서 역영,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7개의 金메달을 거둬들였다.

유태계인 마크·스피츠는 캘리포니아州로스앤젤레스에서출생, 7살때부터 샌타클레라의 에이지·그룹에서 수영을 익혔다. 68년 멕시코·올림픽에 처음출전, 金메달 7개를 장담했던 그는 계영4백m에서만 金메달 1개를 얻고 銀메달2, 銅메달1개에 그치자 은퇴를 선언하며 사라졌으나 72년 뮌헨올림픽선발전에 다시 등장, 자유형1, 2백m와 접영1, 2백m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야망을 불태웠다.

뮌헨에 나타난 그는 놀랍게도 자유형과 접영1, 2백m를 모두 세계신기록으로 석권하고 계영4백, 8백m, 혼계영4백m서도 우승, 7冠王의 목표를 달성했다. 7번째종목 혼계영 4백m출전을 앞두고 등에 가벼운 부상을 당했던 스피츠는 마지막 코스를 헤엄치며 이렇게 자신을 타일렀다. 『몇번만 더 손을 뻗어라. 그러면 모든것이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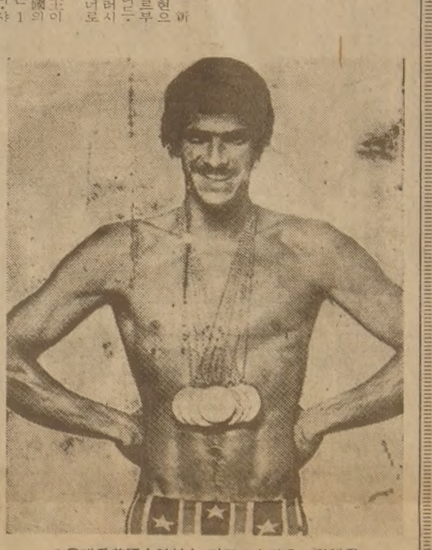
9월4일 올림픽사상 최초의 7冠王이된 마크·스피츠는 9월5일 팔레스타인 게릴라의 이스라엘선수단습격이 있은후 곧 美國으로 돌아갔다.

지금 그의 金메달 7개는 캘리포니아의카마이클은행금고속에 묻혀있다. 쇼·비지니스계의 윌리엄·모리스社와 계약을 맺은 마크·스피츠는 모리스社의 게임·플랜에 따라 팬들과의 관계를 끊고, TV쇼출연, 광고모델, 영화출연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있다. 잘만하면 몇년사이에 수십억을 벌어들일수 있다는게 수영장을 영영떠난 스피츠와 모리스社의 계산이다.

68명의 선수를 파견한 한국은 재일동포 유도선수 吳勝立의 미들급 銀메달로 체면을 세웠다. 처음 올림픽에 출전한 北韓의 李鎬俊은 사격소구경복사에서 6백점만점에 5백99점의 신기록으로 우승했으나『敵의 심장을 맞추듯 쏘았다』고 비스포츠적인 우승소감을 밝혀 큰물의를 일으켰다.

南北선수단은 스포츠 교류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方錫絢기자】



◇유태系美國수영선수 마크·스피츠。뮌헨올림픽에서 7개의 金메달을 획득, 올림픽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한국에 推理小說붐

日 아사히신문 國際版톱으로 보도

"한국讀書界에이변…育成不可能정설 깨 학생과 샐러리맨層서 압도적 지지 餘裕뒤에숨은 不滿 돌파구일지도"

한국에서 최근 추리소설붐이 크게 일고 있으며 여기에 불을 붙인 작가는 金聖鍾씨(40)라고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1일자 6면 국제판에 머릿기사로『순수문학중심의 한국문단에 추리소설붐이 일고있다』고 同紙서울특파원 藤高기자發로 보도하면서 金聖鍾씨의 사진과함께 인터뷰기사까지 실었다.

◇日本의 아사히 신문은 최근 한국에 추리소설붐이 일고 있으며 金聖鍾씨가 불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한국독서계에 어떤이변이 일어나고있다. 추리소설이 육성되지 않는다는 정설을 깨고 최근 한국작가의 추리소설이 굉장히 팔리고있다』고 말하면서『추리소설이 순수문학 중심의 한국문단에서는 아직 이단적 존재지만 학생과 샐러리맨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또 추리소설이 붐을 이루고있는것은『최근수년동안의 경제 성장에 따라 이제 한국에서도 대중사회가 정착하고있는 증거』라고 분석하고『그것은 여유의 뒤에 숨어있는 불만의돌파구일지도모른다』고 지적했다.

이기사는 또 추리소설붐에 불을붙인 역할을한작가는 金聖鍾씨라고 밝히면서 金씨를 일본의 유명한 추리작가 마쓰모도·세이조(松本淸張)에 비유, 金씨의 작품세계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金씨는 延世大출신으로 지난74년 한국일보 창간20주년기념 2백만원 현상소설에 장편추리소설「最後의 證人」이 당선돼 문단에 데뷔, 이후7년동안「第五列」「浮浪의江」「7개의 장미송이」「Z의비밀」「나는 살고싶다」「서울의 황혼」「죽음을 부르는 소리」등 추리소설을 연거푸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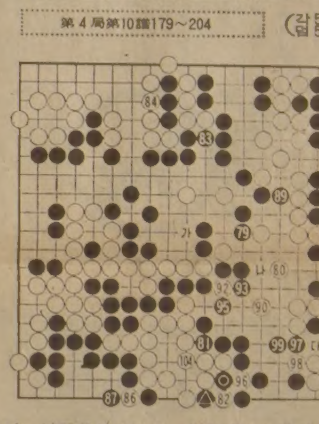
아사히신문은 金씨의 이러한 성공에 자극을받아 추리소설에 손을 대려는 작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인물이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의 독서층확대의 한증거로서 지난6월문을연 대한교육보험빌딩의「教保文庫」를 소개했다.

아사히신문은 教保文庫의 면적이 일본의 최대라는 東京의 야에쓰(八重洲)북·센터의 2천4백평방미터보다 넓은 3천6백평방미터라고 말하고 평균장서는 야에쓰의 1백만권보다 적은 60만권이지만 在庫도서관리에 컴퓨터를 사용하고있으며 하루고객이 2만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東京=宋孝彬특파원】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第10譜179~204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鄭壽鉉〈1敗〉

黑(6段)徐能旭〈1敗〉

黑79로 白한점을 우선 잡아둔 것이「徐6단답게 두터웠다」고 국후에 鄭4단은 말한다. 이렇게 된이상 白80은 부득이한— 그것도 공배를 두면서 연결하는 억울한 수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또하나의 노림이 내포되어 있었다. 다음譜에서 나타나지만 중앙을 白「가」에 붙이는 수를 보고있는 것이다.

徐6단은 그수를 못잡았는지 또혹은 보고서도 우선 하변 黑일단의「한진」을 확보할려 白에게104를 강요하여 몇집의 득을 보려했는지 (아마 後者가 사실인것 같지만) 갑자기 黑81로 우그려대었다. 하지만 白이 즉시104에 응해줄리는 없다. 82로 따내서 다시금 패로대항한 것이다.

여차할때 104로 살아버리면 그만이라는 白의 배부른 흥정인만큼 黑은 아무래도 손해를 자청하고있는 꼴이다.

黑81 긁어부스럼

白은 이동안 90으로 대마를 완전히 연결하고 92의 적절한 패감으로 유유히 저항한끝에 결국 白96으로까지 따내고 말았다.

이제와서 패감부족을 한탄해도 때가 늦다. 결과부터 말하면 黑81로 인하여 99와 92를 교환한 격이다. 鄭4단은 이곳패에서 서너집가량 득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좌우간 黑81은 긁어부스럼밖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黑81로는「나」에 치받아 장차쳐들어올 白「가」에 대비해야 되었던 것이다.

뿐인가 黑101도 경솔했다. 의당 102자리를 이을것. 아마 白100을「다」에 따낸것으로 착각한모양이지만 이것이 패착일지도 모른다. 白104로 자중해도 오히려 대만족이다.

85·91·103…▲。88·94…82。101…●。

【一凡】

文學 회제

모든 좋이 위의 生 <222>

趙善作 作 / 金光培 畵

꽃개바람 불다 ㉓

일행은 이층에 묵고 있었다. 밤은 해운대에서처럼 두개를 빌었으며, 예상했던대로 그들은 오후 두시까지 잠을 잤다. 깨어난 그들은 근처의 음식점에 시켜 놓은 점심을 먹었다. 점심뒤 일행은 외출했는데, 근교의 호수나 현충사에 다녀온 모양이었다. 그들이 돌아온 것은 어두워진 다음이었고, 한 방에 모여 여관집의 식사로 저녁을 먹었다.

나는 그들의 동정을 살피기에 가장 알맞은, 역시 이층에 있는 방 하나를 빌어 낮동안 수인(囚人)처럼 갇혀 지냈다. 어둡고 좁고 긴 복도가 기역자로 굽어진곳에 내 방이 있었다. 그들의 방 두개는 기역자로 굽어지기전 복도의 양쪽에 마주보고 있었다. 그들이 방문을 열고 맞은편 방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소리는 문을 닫고도 내 방에서 또렷이 들렸다. 외출하기 전 나는 그들이 근교의 어떤 호수 이름과 현충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외출하면서 종업원에게 밤에 남겨둔 집의 안부에 관해서 묻는 말도 들었다.

그들이 외출했던 몇시간동안 나는 안심하고 잠을 자두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깊이 잤기 때문에나는 간밤의 피로가 말끔하게 가시는 느낌이었다. 나도 여관집의 식사로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밤 늦게까지 여관의 복도는 매우 부산스러웠다. 이따금씩 복도로 나와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나는 일행의 동정을 살피기도 했다. 유장훈 감독은 밤 늦게까지 두개의 방을 왔다 갔다 했다. 여자들의 방에서 더 오랫동안 유감독의 말 소리와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방의 도어옷쪽에는 그 방의 소등(消燈)여부를 알수 있게 해주는 유리창이 한 장씩 붙어 있었는데, 그의 방은 죽처럼 불이 꺼지지가 않았다. 새로 한시가 지나고 여관이 전체적으로 잠잠해진 다음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아마 일의 마무리 작업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고, 그가 그럴 때 그의 방에 칩거하는 것은 그를 번거롭게 하는 짓이라는 깨우침이 내 마음을 무겁게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나로부터 도망쳤던 것이다. 서울행인줄 알았던것이 온양행으로 귀결지어진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여자들의 방은 마침내 불이 꺼졌고, 두방을 왔다갔다 하던 유장훈 감독은 한시가 넘어 마지막으로 그의방에서 나왔다. 방안에서 그가「외박의 외박인가?」하고 탄식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옆에서 긁적거리고 있으니까 잠이 오겠어?」라고 유장훈 감독이 짤짤대며 말했고,「핑계대지 마」라고 그와 잠시 신경전이 오가는 듯하다가 유감독은「에이 더러워. 내일은 방 하나 따로 잡아야지」라고 말하고 나서 복도에서 사라졌다. 나는 유감독이 어디로 간는가 알수없었다. 우리가 묵고있는 여관에 여분의 방이 없다면 아마 다른곳도 형편은 비슷할 것이다. 관광호텔의 클럽인가, 하는 생각도 나는 얼핏 했고, 해운대의 나이트 클럽에서 내가 겪은 한심했던 수모도 잠시 떠올렸다.

아뭏든 그가 이제 방을 혼자 지키고 있음은 분명해졌다.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 밤의 불은 날이 밝기 전에는 꺼질 것이 틀림없었다. 그가 나를 완곡하게 쫓아 버린 그날로 해운대를 떠난 것은 아무래도 그가 여전히 나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는 이제 그에게 그렇게 물리적인 힘으로는 내 추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시 증거로써 보여주어야만 했다.

援護處 企劃室長 金相榮씨를 임명

정부는 8일 원호처기획관리실장(1급상당)에 金相榮원호위원회위원장을 임명 발령했다.

日刊스포츠 小說에 新聞倫理委서 警告

韓國新聞倫理委員會는 9월30일 제537차 회의에서 日刊스포츠의 연재소설「第5의 사나이」의 제4, 5, 6, 7, 8, 9, 11, 12, 13, 14회분은 혼외정사장면의 노골적이고 저속한 표현은「公開警告」하는한편, 위원회 결정이유부분전문을 동지상에 게재하도록하고 大田日報에 8월18일자 6면1단「처녀 차례로 욕보여 10代 5명 구속」제하의 기사는 봉욕한 소녀의「주소」공개로 公開警告키로 결정했다.

投宿客에 음란테이프 上映 旅館主·販賣商등 3명拘束

표주박

○…大邱시경은 8일 투숙객들에게 음란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해준 大邱市東區板底洞767 지화장여관(주인 裵殷桂씨·35) 지배인 朴鍾辰씨(31)와 이들에게 테이프를 판매한 大邱市中區文化洞2 새한비디오 주인孫寅五씨(31)등 3명을 음화전시등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裵여인등은 지난7월30일부터 여관3층객실 13개에 컬러TV 1대씩을 비치, 안내실 비디오와 객실을 연결, 투숙객들의 요구에 따라 외국음란필름을 상영해왔다는 것.

孫씨는 음란테이프 40개를 불법으로 복사제조해 裵씨등에게 1개당 2만원~2만5천원씩받고 팔아온혐의이다.

【大邱=聯】

주간女性

〈탤런트 俞知仁〉

억울한 女性에 「사랑의 손길」 4半世紀
—25돌 된 家庭法律상담소「어제·오늘·내일」
愛人집 울린 가짜 男大學生
國內外 入養 실태와 문젯점
西獨출신 며느리의「한국頌」
논픽션 스티브·매퀸 ㊤
閉經 독신녀가 巨大兒 출산
모델이 다이어트 하다 死亡
사랑의 테마特輯「同性愛」편
孝婦 탤런트 金容琳 市民이 주는 賞 탔다네
丁允姬의 美國行 가을 나들이 놓고 소문 만발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새 리스팅

도넛샵:
①주매상 ＄3500. 6개월뒤 전망 밝은지역
렌트: $3000. 10년+10년 옵션. $90000다운.
가격: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 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1,060. 8년+10년옵션. $140,000다운
가격: $185,000

커피샵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2,500. 렌트: ＄1,225. 3년+3년옵션
가격: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5,500. 렌트: $750, 5년+3년
가격: $50,000
②주매상: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용개지 잡아줌.
가격: $164,900

101 DUNCAN MILL RD. SUIT404
DON MILLS, M3B 1Z3
(B) 449-8644, (H) 286-1548

인 사 말 씀

금번 기도 드리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세상을 떠난 "형곱"의 처
"김영순"(함)의 장례식에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위로하여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배전의 지도편달을 바라
옵니다.

함태선과 형제·가족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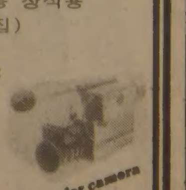
10월7일

사 진

• commercial photography
기업의 성공은 적절한 광고로부터!
백마디 말보다 한장의 사진을!
(무료상담, 당분간 특별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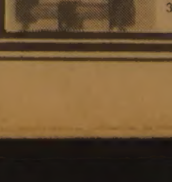
• home, office wall decors
쓸쓸한 벽을 아늑하게 장식하는
대소형 액자및 MURAL등 장식용
작품사진(위탁판매점 모집)

• wedding coverage
특수 효과를 살린 창의력
넘치는 사진들 캐나다
최대의 전문 LAB에
현상의뢰



color camera

• VIDEO service
칼라TV로 볼 수 있는 비데오 촬영!
비데오가 없으신 분도 빌려 볼 수
있읍니다. (단체행사및 결혼, 회갑,
돌등 가족행사)



(구 David's Photography)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